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 교육가족의 행복파트너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난 50년,
교육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앞으로 다가 올 100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축회관
'The-K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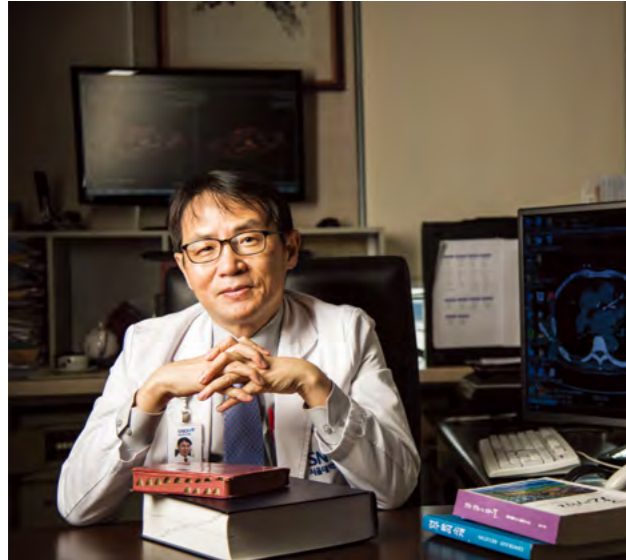


The-K



CONTENTS

2018 MAY VOL.09



4
여는 글
 사랑으로 채워진 5월
 당신께 띄우는 편지

6
Essay
 나는 아이가 되어 나팔꽃 피는 교실에
문태준 시인

8
Inside Out
 5월 15일, 카네이션에 담은 마음
 당신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10
Special Interview
 삶의 마지막 순간 내리는 존엄한 결정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

16
Interview
 성과 삶, 성과 생명 그 연결 고리를 잇다
추은영 경기 김포 하늘빛초 보건교사

20
아름다운 동행
 선생님, 선생님,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정임숙 전남 보성 별교여고 교사 & **김금례** 은사

26
먼 나라 교육 편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떠난
 베트남 하노이
안영주 서울 북가좌초 교사

30
트렌드 Go Go
 컬러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품다

32
행복 만들기
 예술과 스포츠가 만나다 Shall We Dance?
 경기북부교원 댄스스포츠교육원

36
네오필리아
 봄날의 페스티벌을 좋아하세요?

38
브랜뉴 여행
 운을 시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의 또 다른 대륙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 더반 · 케이프타운

44
아는 공간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학림은 안 잊었노라
 학림다방이 지닌 힘

46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48
재테크 팩토리
 금리 인상기 내 집 마련,
 임대주택으로 돌파구 찾기

50
The-K Focus 1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2nd The-K Art Exhibition 그날의 기억

54
The-K Focus 2
 The-K 행복서비스, 뮤지컬 <닥터 지바고>
 공연 전관 회원 초청 행사

58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1
독자 이벤트
 5월 즉석 당첨 이벤트

The-K

VOL.09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5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이유선 정라희 정은주 박혜경
교열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우 황원 이민희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사랑으로 채워진 5월
당신께 띄우는 편지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하던 말.
까끌까끌하던 혀로
세상에 태어나 처음 불러본 말.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아주 따뜻해져 나도 모르게 부르기 시작한 말.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때가.
누구에게 말하기 쉬운 이 단어가
어떤 이에겐 늘 표현하는 이 말이
왜 이리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졌을까요.

사랑으로 채워진 5월,
당신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5월 한 달만이라도
매일 당신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5월의 따뜻한 햇살을 닮았다고.
당신은 선물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한다고.

나는 아이가 되어 나팔꽃 피는 교실에

내가 태어난 곳. 경북 금릉군 봉산면 태화2리 794번지. 지금은 시군 통합으로 행정구역이 김천시로 변경되었다. 나의 할아버지도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고, 나의 아버지도 살고 계시고, 나 또한 이 주소지에서 태어났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태화초등학교로 1949년 10월 10일에 개교했다. 지금은 전교생 수가 10명 남짓 된다고 한다. 나의 가족은 모두 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께서 1회 졸업생이시고, 어머니께서는 9회 졸업생이시다. 나의 두 누나와 두 여동생도 이 학교에서 공부했다. 아버지께서는 태화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아 일하신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무슨 행사에서 하실 인사말을 빈 종이에 쓰고 그것을 읽어가며 연습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내가 태화초등학교를 다닐 적에는 전교생이 200여 명에 육박했다. 우리 학년은 모두 41명이었고, 한 교실에서 배웠다. 등지 속 하얀 새알처럼 우리는 지냈다. 여학생이 26명, 남학생이 15명이었다. 같이 피리를 불고 북을 치고, 풍금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줄넘기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숙제를 함께 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 다녔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줄었지만 저학년 때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날이 더운 여름 날 시골길을 오갈 적에는 그 길이 몹시 아득했다. 그래서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개울물에 들어가거나, 사과 과수원에 들락거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집안이 모두 가난한 시골 학생들이어서 옷차림과 신발이 허름하니 비슷했다. 옷을 물려받아 입어서 체구에 비해 옷이 대개는 큼직했다. 싸 오는 도시락 반찬도 펼쳐놓으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는 선생님들의 성함은 윤덕채 선생님, 태영배 선생님, 김환순 선생님이다. 등교하면 친구, 선생님들과 축구공을 찼고, 철봉에 매달렸고, 달리기를 했다. 교실에는 나팔꽃이 자라고,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나팔꽃은 음악 시간에 더더욱 잘 자라났다. 점심시간이면 선생님들께서는 당신이 싸 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식사를 하셨다. 선생님의 도시락은 운동장처럼 어마어마하게 컸고, 반찬도 아주 다양했다. 당신이 싸 온 점심을 학생들에게 덜어주시고 나눠주셨다. 당시에는 수업 외 활동도 많았다. 추운 날에 교실에서 땀나무를 마련하려고 학교 뒷산에 가서 나무를 했고, 나름 고학년이 되어서는 학교 주변 논밭에 가서 바쁜 농사일을 돕기도 했다. 식목일이면 민둥산에 어린 나무를 심은 기억도 있다. 교실은 늘 시끌시끌했다. 학교에 지각하는 친구도 많았고, 수업 도중에 도망가는 친구도 있었다. 수업을 받지 않고 도망간 친구를 찾아 데려온 적도 여러 번 있다. 시험을 치러서 학습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방과 후에 남아서 자습을 했고,

다시 점검을 받아 합격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선생님들께서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선생님들께서는 웃어 넘기셨고,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오시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부모님 앞에서 나를 칭찬해주셨다. 선생님께서 하신 그 칭찬의 말씀이 아주 먼 후일에까지 내게 엄청난 응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칭찬의 말씀이 매일매일 고된 농사일로 힘든 부모님께 큰 힘이 되었다.

선생님들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나는 글짓기 대회나 웅변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갔고, 나중에는 봉산면을 대표하는 학생이 되어 더 큰 규모의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큰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 발달된 도시로 멀리 가본 그 경험은 내게 특별했다. 그리고 글을 짓는 능력을 인정받아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백일장에 나가는 일이 더 잦아졌다. 나는 겹겹의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을 벗어나 대구로 경주로 가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글을 지었다. 물론 글을 짓는 일보다 변화한 도시에 가보는 일 혹은 전통 문화 속으로 멀리멀리 가보는 일이 내게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었지만.

나는 아직도 아이가 되어 나팔꽃 피는 교실에 앉아 있다. 그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나팔꽃이 내게 속삭이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작은 책상과 낮은 걸상에 앉아 있다. 잘 웃고 장난기 많은 친구들 그리고 다정다감한 선생님과 함께. 내가 한글을 익힌 그 교실에서 나의 문장도 태어났고, 그리하여 나는 지금도 행복하게 시를 쓰고 있다.

문태준(文泰俊) 시인

깊고 한결 섬세한 시선을 지녔다.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 외 아홉편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수련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마> <그늘의 발달> <먼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유심작품상, 노작문학상,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서정시학작품상, 애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5월 15일, 카네이션에 담은 마음 당신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존경하는 스승, 믿음직한 제자를 만나다의 건 예나 지금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해 회원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간 2018년 4월 2일 ~ 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4016명

성별	남성	31.8%
	여성	68.2%
연령	20대	11.1%
	30대	35.1%
	40대	28.4%
	50대	19.4%
	60대 이상	6.0%
직업	교원	60.7%
	비교원	39.3%
	유치원	3.1%
	초등학교	28.5%
	중학교	13.6%
	고등학교	15.4%
	대학교·병원	25.4%
근무하는 직장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5.4%
	기타	8.7%

(단위: %)

Q. '스승의 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카네이션	41.8
선생님	22.8
스승의 은혜 (노래)	6.1
학생/제자	5.3

기타 감사의 마음 5.0, 편지 3.3, 선물·기념행사 1.2

Q.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스승이 있습니까?

있다	32.3
없다	67.7

Q. '스승의 날'을 맞아 생각나는 스승이 있습니까?

있다	85.8
없다	14.2

Q. 어느 학창 시절의 스승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1위 초등학교 (국민학교)	39.0
2위 고등학교	33.2
3위 중학교	18.3
4위 대학교	7.9
5위 기타	1.6

Q. 그 스승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

1위 따뜻하고 자상해서	62.3
담임 선생님이셔서	35.0
매사에 열정적이어서	33.8
수업을 잘하셔서	9.7
기타	6.4
엄하고 무서워서	6.2
유머가 있으셔서	6.1
외모가 수려해서	1.1

Q.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 스승을 찾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	42.1
없다	57.9

Q. 스승을 찾아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위 연락처나 계산 곳을 알지 못해서	38.0
일부러 찾아볼 만큼 생각나는 분이 없어서	29.6
현재 찾아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21.1
기타	7.7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보려고	3.7

Q. 교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직 교사 대상)

1위 성장을 돕고 가르치는 보람 때문에	28.9
2위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20.4
3위 어릴 적 꿈이 교사라서	18.0
4위 적성에 맞아서	16.0
5위 부모님·가족 등의 권유로	13.3
6위 기타	3.5

Q. 최근 1~2년 사이 귀하의 교직 만족도와 사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현직 교사 대상)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올라갔다	19.1	29.8	19.8	16.4	15.8	13.2
떨어졌다	51.3	35.3	48.0	55.6	60.3	60.4
변함없다	29.5	34.9	32.2	28.0	23.9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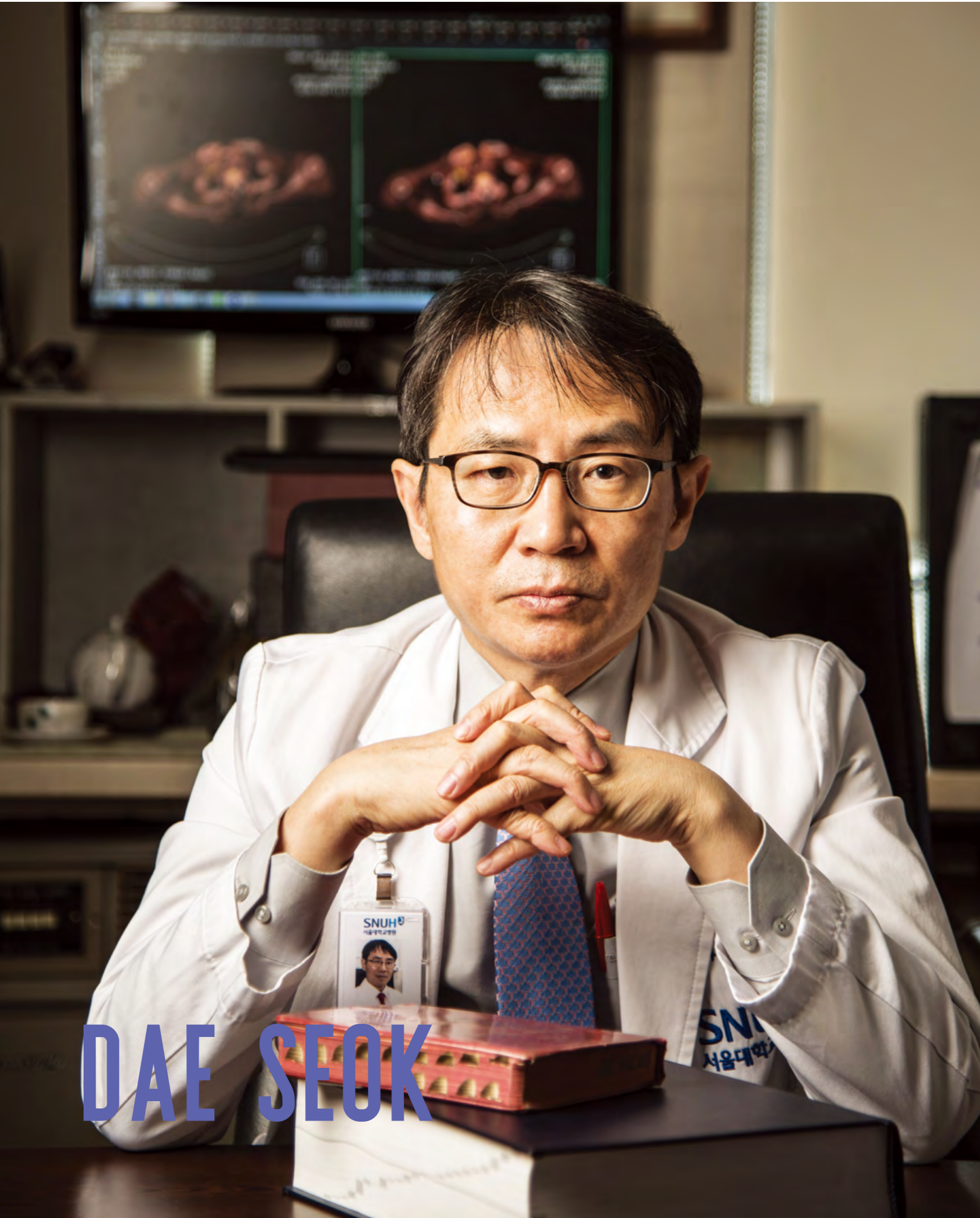
Q. 귀하가 볼 때, 최근 1~2년 사이 동료들의 교직 만족도와 사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현직 교사 대상)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올라갔다	10.5	20.7	11.1	6.9	8.0	9.4
떨어졌다	67.9	50.2	63.2	73.8	77.6	79.2
변함없다	21.7	29.2	25.7	19.3	14.4	11.3

Q. 교직 생활을 돌아볼 때 학생 또는 학부모 등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감동받은 선물과 그 선물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직 교사 대상/주관식)

1위 편지	49.8
2위 꽃	6.7
3위 간식	2.3
4위 사진·앨범	1.4
5위 그림	1.2
6위 책	1.1

<이색 답변>
김치·장류(고추장, 된장 등)·도장·향초·참기름: 직접 만들어 주어서
계란·과일·곡식(쌀, 콩 등)·채소: 직접 수확한 거라서
영상·녹음 편지: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서



DAE SEOK

삶의 마지막 순간 내리는
존엄한 결정

허대석 회원 | 서울대의과대학 내과 교수



HEO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제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마침표를 찍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죽음이 진정한 삶의 일부가 되려면 오히려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해인 2018년.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수많은 환자와 함께한 허대석 교수에게서 존엄사와 연명의료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표현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매년 발생하는 사망자 중 90%가량이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으로 숨을 거둔다. 평균수명은 82세가 넘었지만, 노년의 삶은 결국 질병과의 동행이다.

이제 과거처럼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는 드물다. 예전에는 임종이 가까워오면 가족을 불러 환자를 집으로 모시게 했지만, 언젠가부터 의사도 환자도 보호자도 자신들의 판단대로 퇴원을 결정하지 못했다. 환자의 퇴원이 곧 의료진의 치료 포기로 여겨질 수 있는 제도적 한계에 갇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나마 지난 2월 4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종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오랜 논쟁 끝에 결국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니다. 의학은 단순 과학이 아니라 많은 요인이 뒤섞여 움직이거든요.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연명의료는 기술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임종 문화의 변화입니다.”

과거 생로병사 현장은 철저히 ‘집’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죽음에 관해서만은 해결하지 못한 지점이 남아 있다.

“1970~1980년대만 해도 죽음과 관련한 가장 큰 논쟁은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매장 문화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러다 전국이 묘지로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매스컴을 장식했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어 장례 문화에 관해서는 새로운 규범이 자리 잡았어요. 반면 임종 문화는 아직 의료와 사회 사이에 접점이 정립되지 않은 채 혼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최선이고, 사회 규범상 ‘효(孝)’인 걸까요? 그 와중에 사회적으로 노출된 문제가 연명의료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이 70~80%로 늘어난 지금, 한 사람이 갖는 죽음의 의미는 퇴색하고 환자로서 삶을 맺는 비중이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죽음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크게 왜곡된 면이 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쉬운 데다 죽음의 과정에 의료 행위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가 개입되면서 병원을 이곳저곳 헤매다 임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영국이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를 제외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불만족이 크

죠. 죽음을 앞두고서도 ‘더 나은 의사, 더 나은 신약’을 찾아 시간을 허비해요. 환자들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죽음에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요. 사실 그 시간에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재산 정리 같은 절차가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삶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필요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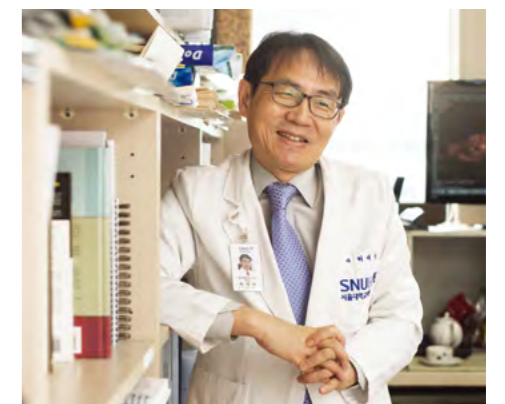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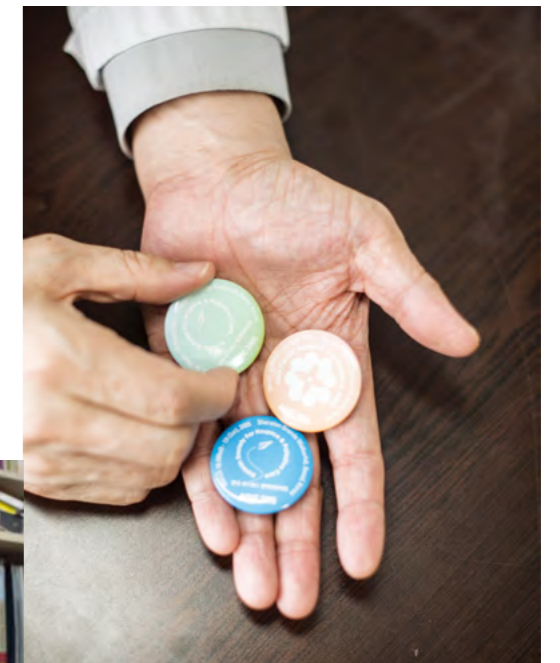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는 임종 문화의 한 단면일 뿐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많은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한다. 어차피 맞이할 죽음인데 좀 더 오랜 시간 가족과 손잡고 온기를 나누었어야 한다고.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 이전에는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조차 없었다.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 존중 대신 ‘법적 절차’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1997년 있었던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은 “퇴원하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의사의 견해를 뒤로하고 퇴원을 강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살인죄’가, 보호자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살인방조죄’가 적용됐던 일이다. 이는 의료 현장의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의사들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허대석 교수를 비롯한 많은 의료진의 노력과 참여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이 역시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한 제한적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연간 25만 명의 질환 사망자 중 말기 환자는 20만 명으로 하루 평균 50여 명이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입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법으로 함께 묶으면서 임종기와 말기를 구분했는데, 암 환자는 말기 진단이 비교적 쉽지만 만성질환 환자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법 시행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늦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시아권에서도 대만은 이미 2000년에 자연사법을 제정해 시행했고, 일본은 2007년에 국가 지침을 만들어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건도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 과정에서도 절차와 명분을 너무 앞세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준비할 서식이 너무 많아 의료 현장에 있는 환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우리나라는 문화적 이유로 환자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다수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발병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이로 인해 환자들은 예비된 죽음을 준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더 나은 의사’ ‘더 나은 신약’을 찾아 시간을 허비해요. 환자들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죽음에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요. 사실 그 시간에 할 일이 참 많거든요. 한 인간으로서 삶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필요하죠.”





환자를 위한 길, 남은 이를 위한 위로

허대석 교수가 연명의료에 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이유에는 암 환자를 주로 보는 종양내과 의사라는 특수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종양내과에서 만나는 환자는 대부분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된 사례가 많았고, 1980~199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많은 환자가 임종에 직면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이 환자를 위한 길'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는 28만여 명의 사람 중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5만여 명입니다. 그중 급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1만~2만 명이고, 나머지는 만성 질환을 앓다가 숨을 거두죠. 연명의료 행위는 급성 질환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객사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 많은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 임종하기를 바랐다. 허대석 교수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서구 사회 역시 산업화를 겪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집에서 임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역시 60% 이상이 임종을 원하는 장소로 '집'을 꼽는다.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마음의 치유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효과도 있다.

“환자들의 버킷 리스트는 세계 일주 같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한 40대 유방암 환자에게 '무얼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집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환자가 힘이 없으니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모시고 임종 전에 집에 잠깐 들렀다 왔지만, 결국 임종은 병원에서 하셨죠. 평소에는 일상 자체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실제 임종을 앞둔 상황이 되면 사소한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다가와요. 집은 가족과 교감하는 하나의 환경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환자는 물론 남게 될 가족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혼선에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냐에 따라 우리나라 임종 문화도 변화할 수 있다. 의학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규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앞으로 의학계를 이끌어갈 의사들의 당면 과제다. 허대석 교수는 장기적으로 존엄사에 관한 내용이 의사국가고시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 길은 여전히 멀지만 되새길 원칙은 분명하다. 바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 기준을 바탕으로 허대석 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과 삶, 성과 생명이 그 연결고리를 잇다

추은영 회원 | 경기 김포 하늘빛초 보건교사

성(性)교육 하면 가르치는 어른도 배우는 아이도 어렵고 진지하다. 무엇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알려줘야 할지 경계가 모호한 데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려 진땀을 빼곤 한다. 한데 추은영 경기 김포 하늘빛초 보건교사의 성교육 수업 시간에는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이해하고, 엄숙함보다 즐거움으로 성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커닝으로 시작된 꿈, 여전히 진행 중

유년 시절 교과서 외에는 책에 별 흥미가 없던 아이는 어느 날 난감한 상황과 맞닥뜨렸다. 저마다 꿈을 발표해보자는 선생님 말씀에 문득 자신은 꿈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위인전이나 동화책을 많이 읽었다면 이런저런 직업을 상상해보거나 동경의 대상을 간직했을 텐데, 저는 책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장래 희망을 꿈꿔본 적도 없었어요. 별수 없이 친구들의 장래 희망을 듣고 교사와 간호사라는 꿈을 커닝했어요.”

시작은 엉뚱했지만 추은영 교사는 꿈을 잘 보듬고 키워 결국 보건교사 되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꿈에 수식을 하나 더 붙여 ‘청소년 꿈 지킴이 보건교사’로 궤도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교육’을 매개로 아이들의 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교육은 삶 교육이며, 생명 존중 교육이에요. 성에서 출발해 임신과 출산, 육아, 사랑, 관계 등의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특히 자신이 타고난 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도 더욱 커져요. 더 나아가 타인의 성 또한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배려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성을 감추려 하거나 타인의 성을 함부로 폄하하고 힘으로 누르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 성교육이 성폭력·성추행 예방 교육에만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워요.”



CHOO



EUN YEONG



“성교육은 삶 교육이며, 생명 존중 교육이에요.
 성에서 출발해 임신과 출산, 육아, 사랑, 관계 등의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특히 자신이 타고난 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도 더욱 커져요.
 더 나아가 타인의 성 또한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배려하게 되죠.”



성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는 성의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추은영 교사의 목표이자 소망이다. 그 때문에 매주 7시간씩 진행되는 성교육 수업은 유쾌하고 체험적이다. 추은영 교사가 직접 기획·구성한 ‘생명 존중 성교육 보건 수업 5차시’ 프로그램에서는 생활 속 성의 모습, 성폭력 예방, 사춘기 몸의 변화, 아기가 자라는 자궁, 아기의 탄생 등 서로 연결된 성과 생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계란아기’를 며칠간 보살핌으로써 자궁의 개념과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체득하도록 독특한 아이디어도 접목했다.

계란아기를 보살피며 생명을 배우는 아이들

때마침 5학년을 대상으로 계란아기 관련 수업이 진행되던 날, 작은 상자나 우유팩으로 아기집을 만들어온 아이들은 추은영 교사가 나눠주는 계란아기를 받아 든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봐온 계란이지만 ‘아기’라는 의미를 부여하니 신기하고 조심스러운 모양이다. 작은 계란을 두 손으로 살포시 받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계란아기를 위해 손뜨개 주머니를 준비해온 아이도 보인다.

“처음 계란아기를 받으면 낯설고 어리둥절해하지만 점점 한 생명을 대하듯 애정과 조심성을 갖게 돼요. 학교는 물론 학원이나 집에서든 항상 함께하며 막연하게 알고 있던 자궁, 임신,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니 계란아기와 헤어질 때는 엉엉 울 만큼 슬퍼해요.”

변화는 가정에서도 나타난다. 계란아기를 돌보는 자녀의 모습에서 학부모들은 지난 임신 시절과 육아 과정을 회상하며 다양한 감정을 일깨운다. 가족 간 새로운 화젯거리가 생겨 대화가 풍부해진 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이 같은 선순환을 마을과 지역 공동체까지 넓혀가고자 추은영 교사는 성문화연구회장, 성교육 전문 강사, 작가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초 우리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보건교육 거점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거점 학교로서 김포, 부천, 안산 지역 학교들과 생명 존중 성교육을 공유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근 중학교 두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취지에 공감하는 학교와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죠.”

신데렐라를 꿈꾸는 줌마렐라 보건교사

추은영 교사의 하루는 실 틈 없이 빠곡하다. 교내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보건교사 본연의 역할 외에도 외부 성교육 강의, 박사



과정 공부 등의 일정으로 하루를 채운다. 하지만 아이들과 마주하는 그의 입가에는 웃음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전교생이 그의 별명인 ‘줌마렐라’를 알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처음 수업을 할 때 ‘줌마렐라’라는 제 별명을 알려줘요. ‘이줌마이지만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다’는 나름의 의미도 들려주죠. 별명이란 게 남이 나를 회화하거나 비하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 별명을 직접 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아이들이 무심코 부르는 별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도록 유도하죠. 덕분에 아이들과 금세 친근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한데 이처럼 유쾌한 모습 너머에는 가슴 시린 사연이 웅크리고 있다.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왕따와 성적 비판으로 삶을 포기한 아이들의 소식을 두 번이나 접한 것이다. 특히 떠다니는 공기처럼 아이들의 일상을 에워싸고 있는 왕따의 공격성과 두려움은 그가 꼭 해결해나가야 할 소명으로 다가왔다. 계속된 고민 끝에 타인의 성과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성교육을 대안으로 찾아냈다. 그의 진정성은 아이들에게도 오롯이 전해져 5차시에 걸친 성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의 성 지식은 20% 이상 높아지고, 타인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게 됐어요” “생명을 막 다루지 않아요” “미래에는 진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박또박 적어낸 소감에는 긍정적 변화가 가득하다.

어릴 적 친구의 꿈을 좇아 보건교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추은영 교사. 특히 그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 맞닿아 있기에 우리는 ‘청소년 꿈지킴이 추은영 보건교사’에게 기대와 응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 선생님,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정임숙 전남 보성 벌교여고 교사 & 김금례 은사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 참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할 것이고, 참스승을 만난 사람은 이 말을 강하게 부정할 것이다. 오늘 여행의 주인공, 정임숙 벌교여고 교사는 단호하게 후자의 자리에 선 사람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는 은사를 둔 감사와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그에게 오늘 부안 여행은 지난 세월에 담긴 이야기를 오롯이 꺼내 보인 시간이었다.



여고생, 평생 스승을 만나다

한국무용을 가운데 두고 스승과 제자로 엮인 두 사람은 저 멀리서부터 자태가 고왔다. 하늘하늘한 봄기운이 주변을 감싸는 고운 차림과 그보다 더 봄같은, 춤을 추는 듯한 두 사람의 손끝과 발끝이 사뭇 그러했다.

도무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곱디고운 김금례은사를 모시고 나온 정임숙 교사는 즐거움과 조심스러움이 한껏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제지간 인연을 맺고 함께 지내온 세월이 올해로 벌써 35년째. 그 긴 세월 동안 단둘이 여행을 나온 게 오늘이 처음인 데다가 보태어 낯선 이까지 함께 만나야 하는 은사를 살피는 정임숙 교사의 마음 씩씩이가 여간 다정하고 따뜻하지 않았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조선대 예능 교실에서 무용과 학생이던 선생님께 춤을 배우기 시작한 게 첫 인연이었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선생님 댁에서 1년간 숙식하기도 했어요. 평생 절 챙기고 아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출발부터 범상치 않은 운명이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 일곱 살 때부터 꾸준히 무용을 해온 정임숙 교사. 갑작스레 기울어진 가세에 무용을 포기한 때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었다. 형편상 무용은 생각지도 못하던 시절, 뜻밖의 기회로 김금례 은사를 만나 다시 무용을 시작한 것이다.

“그때의 선생님은 모든 제자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이셨어요. 말씀도 조용조용하시고 내성적이셨지만 범접 못할 카리스마가 있었고 엄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임숙 교사는 그런 김금례 은사가 참 좋았다고 회상했다. 모든 말씀이 귀에 쫄쫄 들어와 박힌 것은 물론 하시는 동작, 가르침이 모두 보석처럼 빛나 마음에 박혔기 때문이었다. 웬지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오라를 품기는 김금례 은사가 제자의 이야기에 보일듯 말 듯한 얇은 미소를 지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도 자꾸 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닌 스승. 정임숙 교사가 설명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느낌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춤사위, 고이 접어 나빌레라

오늘 나들이길로 정한 부안은 정임숙 교사와 김금례 은사 모두에게 익숙한 곳이다. 그러나 둘이 함께 온 건 처음인지라 오늘 여행은 사제지간 첫 번째 나들이 추억이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모두가 향한 곳은 계화회관. 부안에 오면 꼭 한번 둘러볼 만한 곳으로 지역 특산품인 백합으로 만든 요리를 내는 식당이다. 육고기를 먹지 않는 은사를 위해 정임숙 교사가 특별히 선택했다. 백합 코스 요리가 쉬지 않고 이어 나오자 제자의 손길이 바빠졌다. 더 드시라며 은사의 앞접시에 잘 익은 백합을 놓아 주기도 하고, 좀 멀리 있는 반찬은 직접 접어 접시

에 옮겨주기도 했다. 김금례 은사 역시 제자는 물론 객식구까지 챙기느라 덩달아 분주하다. 서로 먹어보라며 접시며 음식이 들고 도는 훈훈한 모습에 결국은 자리에 모인 사람 모두 유쾌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담백한 백합 요리로 식사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옮겼다. 첫 번째 장소는 내소사. 내소사는 633년 백제 승려 혜구두타가 창건한 사찰로, 1633년 조선 시대 인조 때 중건되었다. 조선 중기 사찰 건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부안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잊지 않고 다녀가는 곳이다. 내소사 초입은 전나무 숲길이다. 흰칠하게 뻗은 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터널을 이루는 길에 들어서자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청량한 기운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무성한 전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들은 서늘하고, 특유의 향기가 온몸을 덮으니 은사와 제자가 그 분위기에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 길을 걷고 걸어 들어가자, 내소사에서 가장 먼저 일행을 반긴 건 세월을 짐작할 수 없는 산수유

나무였다. 오랜 세월을 품은 고목 줄기에 생동감 넘치는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에 너무나 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촬영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내소사 안채에서 따뜻한 차 한잔으로 몸을 덥힌 뒤 일행은 뜻밖에 귀한 구경을 했다. 정임숙 교사에게 춤 한 사위를 청하자 흔쾌히 들어준 것.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여전히 김금례 은사앞에서는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까이 정임숙 교사가 목에 두르고 있던 흰 스카프를 풀어냈다. 내소사 안마당 안쪽의 꽃을 피운 목련나무 밑에 자리 잡은 두 사람. 제자의 손끝에서 하얀 스카프가 마치 한 마리 학처럼 뚝을 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스쳤다. 제자의 춤을 보며 간혹 앓은 채로 제자에게 보여주는 스승의 손동작은 나비처럼 가볍고 봄꽃처럼 아름다웠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문득 멈춰 서서 그 풍경에 눈길을 빼앗기니, 모두가 잠시 세속의 시름을 잊고 우리 춤에 빠져들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다시 차에 올랐다. 곰소염전 앞에 자리 잡은 슬지제빵소에 들러 잠시 당을 충전하기 위해서였다. 슬지제빵소는 하얀 외관부터 눈에 띄었다. 2대째 전빵을 만드는 집으로 우리 밀을 사용해 만든 오색전빵이 먹음직스럽다. 은사와 제자는 여기서도 소녀같이 나란히 앉아 전빵을 나눠 먹으며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다. “선생님은 제계 인성 교육의 표본 같은 분이셨어요. 춤이라는 게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춤동작은 기교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걸 강조하면서 춤을 가르쳐주셨죠. 매 순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무용을 전공했음에도 졸업하면 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현실에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늘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죠. 지금도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춤은 바른 인성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마음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이 새록새록 와닿아요.”



| 오늘 하루 여행을 마치고 |



정임숙 교사

오늘은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하루였습니다. 제 나이가 신살이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는 과연 얼마일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여행 다닐 시간을 내야겠다는 생각,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에 다만 한두 번이라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이 그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제게 언행일치의 표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을 이 자리에 초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김금례 은사

저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제자와의 시간은 운명적으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평소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날이었어요. 다른 일이었다면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제자가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해서 선뜻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요일에 옷까지 사주겠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자와 둘이서 평생 찍을 사진을 다 찍고 가네요. (웃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정 선생은 제자로서 언제나 최고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자였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제자의 말에 은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지난 가르침을 지금껏 가슴에 새긴 채 다시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자에 대한 대견함이 깃든 미소였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마음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이 새록새록 와닿아요. 정 선생은 처음부터 제 마음에 든 제자였고, 언제나 예의 바른 학생이었어요. 선생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고통을 뚫고 나온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언제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아주 고마운, 예쁜 제자였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제시간을 넘어 가족으로 승화된 비밀을 살짝 엿본 기분이었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오늘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채석강이었다. 채석강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층리가 아름답고 바다 밑에 깔린 암반의 채색이 영롱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곳이다.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자 두 사람이 탄성을 질렀다. 숲과 산과는 또 다른 묘미를 자아내는 끝없는 수평선.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잡은 채 백사장을 걷기도 했다. 불규칙한 단층이 드러나 있는 바위 위를 위태롭게 거닐며 뉘엿뉘엿 지는 해가 비치는 붉은 바다를 감상하니 그 모습이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스승과 제자로 정을 나누어 왔지만 바쁜 일상과 일에 치여 오붓한 시간 한번 내기 쉽지 않았다는 두 사람. 오늘 하루는 두 사람에게 선물 같은 날이 아니었을까? "선생님께 받은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하루, 참스승이 살아 있는 세상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스승과 제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 백합 요리**
부안은 백합 산지로 유명하다. 백합은 껍데기의 여러 가지 무늬와 조갯살이 마치 백합(百合) 꽃과 같이 이름 붙었다. 조개의 여왕이라 할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쌀과 백합살, 참기름을 푹 끓여 만든 백합죽은 소화도 잘되고 맛이 좋아 백합 요리 중 으뜸으로 친다.
① **계화회관** 전북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95 (063-584-3075)
- 내소사**
백제 무왕 시절 지어진 내소사는 변산의 4대 명찰 중 하나로 꼽혔었다. 입구의 전나무 숲길이 유명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웅보전 또한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산회괘불탱, 고려동종, 법화경절본 등의 보물도 품고 있다.
②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063-583-7281)
- 채석강**
변산 서쪽 끝 격포항 일대의 총암절벽과 바다를 일컫는 채석강은 부안에 왔다면 반드시 둘러봐야 할 명소다. 배 타고 술을 마시며 놀던 당나라 이백(李白)이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졌다는 채석강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붙었다는 설이 있을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
③ **전북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길(격포리 301-1)**



신호를 위로하기 위해 떠난 베트남 하노이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 교류 차 떠나

벚꽃 잎이 막 날리던 지난해 봄, 밥을 먹지도 잠을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상이 위태로울 때, 교내 공문함에서 '2017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하반기 파견 교사 모집' 공고를 발견하게 됐지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추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해외 파견에 비해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파견 국가는 우리와 교류가 잦은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한국 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것처럼 그곳 교사들도 한국으로 파견돼 학교 현장에 배치됩니다. 주로 다문화 관련 수업으로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학생들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요.

그렇게 5월에 서류를 갖추어 내고, 6월에 선발이 결정되고, 사전 연수를 거쳐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인 8월 말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갔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자 다른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도착하고 석 달 동안 하노이 김동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어요. '석 달 동안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98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고, 그 안에서 어느덧 베트남 생활에 폭 빠져 마음의 아픔 따윈 잊은 지 오래더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신에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교사교류사업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외 체류, 날씨 적응이 제일 힘들어

해외 체류는 두 번째였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2년 반을 지낸 경험에 비추면 베트남 생활은 편하고 안전했어요. 한국인도 많고, 큰 마트에 가면 한국 식재료나 물품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대부분 아시아인이라 딱히 눈에 띄거나 범주의 표적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베트남 파견 교사 34명은 모두 수도 하노이의 각 학교에 2명씩 배치되어 근무했습니다. 한국어 전공한 베트남 통역사들을 지원해주었으니 딱히 외롭지도,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지도 않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의외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날씨였습니다. 9월까지의 맑이 줄줄 흐르는 더위에 시달렸고, 10월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왔으며, 11월에는 추웠다 더웠다 변덕스러운 기온에 감기가 쉬 낫지 않더라고요. 사흘은 날아봐야 마르는 빨래와 눅눅한 날씨로 집 안 여기저기에서 벌레가 출몰하기도 했죠. 하노이의 일상이었어요.

마음 수양(?)이 필요했던 교육 현장

베트남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많지만 교육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제가 파견된 김동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반에 48~67명이 자리해요. 학습지 한 장조차 교사가 사비를 털어 마련하거나 학기 초에 학부모들이 모은 기금으로 충당하죠. 1~5학년의 모든 교실을 돌며 수업을 한 우리는 생활비를 쪼개 자료를 제작하곤 했어요. 교류사업 지원금으로 한 달에 7만원, 도합 21만원이 나오지만 이미 한국에서 핸드벨이나 색종이, 전통놀이 도구 등을 구입해 들여온 터라 현지에서 지출할 만한 예산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학교 측의 어떤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업은 즐거웠습니다.

파견 교사의 자리를 따로 마련할 여력이 없어 항상 교무실의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 교실에 들어가곤 했고, 수업 자료를 둘 곳도 없어 봉지에 넣어 테이블 아래 두고, 회의가 있는 날이면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간간이 교무실 청소하시는 여사님께 눈총을 받기도 했죠. 그래도 석 달을 같이 있는데 객식구 취급받는 느낌에 괜스레 서럽기도 했어요.

또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에 학교장-협력 교사-통역사-한국인 교사로 이어지는 연락은 충분한 설명 없이 지시만 전달되는 체계였어요. 어느 날은 출근 시간이 아님에도 당장 학교에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해서 헐레벌떡 준비해 가니, 누군가가 학교를 방문하는데 '한국인 파견 교사들이 교무실에 있는 모습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호출했다는 말에 실소할 경험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심호흡과 마음 수양이 필요했지요. 베트남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면 문제의식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도 몇십 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꾸준히 노력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국 교사들이 오가며 서로에게 자극을 주다 보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손 맞잡고 위로하곤 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수업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국에서 학교만 옮겨도 한동안 어색하고 힘든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의 불편함과 낯섬은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럼에도 김동 초등학교를 떠나는 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운동장만 바라보게 될 만큼 아이들의 모습은 예쁘기만 했습니다. 전교 순회 수업을 했기에 모든 아이와 서너 번씩은 만났고, 그래서 전 학생이 한국인 선생님을 알았지요.

교문을 들어서면요, 저쪽에서부터 한 무리가 뛰어옵니다. 피차 할 수 있는 건 인사말이 전부.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하며 배꼽인사를 하는 아이들. 뺨을 만지며 “신짜오, 안녕하세요!” 대답하는 우리.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유리창에 코를 눌러 대고 들여다보는 꼬마들, 교실에 들어가면 책상을 두들기고 박수하며 환영하는 학생들... 한 반에 60명이 넘는 아이들과 웃놀이를 하고, 한복을 입어보고, 협동화를 그리고, 함께 현장학습을 가고,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빔이 설치된 곳에선 영상이나 사진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핸드벨 수업을 한 날이 기억에 남아요. 베트남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다루지 않고 주로 노래를 불러요. 더더구나 핸드벨은 베트남 아이들이 처음 만져보는 악기였지요. 핸드벨은 전부 32개로, 모으고 모아 네 세트를 준비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한 명은 계명창을 하고 한 명은 핸드벨을 쥐어 자기 순서에 소리를 내게 했어요. 흥분한 아이들과 음계 연습을 마친 뒤 ‘오버 더 레인보우’ 연주까지 시도했지만, 고작 두 번 연습한 것으로 제대로 될 리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잘해보려고 엄청 집중했어요. 노력한 결과, 어찌어찌 끝까지 연주를 마쳤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박수와 만족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 맛에 선생 하지’라는 생각과 작은 것에도 재미있어하고 기뻐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베트남, 뭐가 제일 좋았어?”라고 묻는 이들에게 “학교에서 수업할 때가 제일 좋았어”라고 대답하자니 뒷목이 간질간질하지만, 어찌겠어요, 그게 사실인걸요.

나머지 시간은 평화롭고 단순하게 흘러갔어요. 7개가 넘는 보고서를 쓰고, 한번의 공개수업과 한번의 전체 회식, 매일 베트남어 과외를 했고, 취미로 베트남 전통 피리를 배웠습니다.



자전거로 하노이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석 달은 역시 짧아서, “이제 뭐 좀 해보려니 끝난다”라며 많이들 아쉬워했어요. 우리는 12월 초에 돌아왔는데, 다음해 1월 방학 때 다시 베트남으로 날아간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다시 하노이안이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왔지요.

괜찮아,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곤 해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 좀 알겠어?”라고 물으면,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고 대답하겠죠. 사회주의 국가,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3.3배 큰 나라, 도시와 촌락의 차이가 극명한 베트남에서 저는 다만 수도 하노이의 어느 공립초등학교에 잠깐 다니다 왔을 뿐이니까요. 한국과 참 많은 것이 다르고, 또 많은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어떤 것은 한국에 적용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다만 석 달 동안의 관찰자였습니다. 눈을 빛내며 돌아다니고, 새롭고 힘드던 점을 소소하게 기록하는 이방인이었을 따름입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거야?”라고 물어도, 아직 뽀족한 답은 떠오르지 않아요. 일단 프로젝트 사업으로 ‘파견 교사 가이드북’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얇은 자료집 하나를 만들고, 한국 학교로 돌아온 뒤 ‘교과 전담 교사’의 이점을 살려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여러 반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음식, 교통수단, 학교의 일상 등요. 베트남 부모를 둔 아이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고, 아이는 “저기 가봤고, 이모가 하노이에 산다”라는 등 특히 즐겁게 재잘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죠.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도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다시 한국, 다시 봄입니다. ‘베트남에는 언제 다녀왔더라?’ 싶을 만큼 무심히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단단히 발붙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열심히 살아가야지요. 이 글을 읽어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가정과 학교에 환하고 고운 꽃이 많이 피어나는 계절이기를 빕니다.



안영주 서울 북가좌초 교사
 “안 선생은 참, 교사스럽지 않아”라는 말이 육인지 칭찬인지 헷갈리지만, 도전하고 겪어내며 조금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교사로서 아이들을 즐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컬러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컬러의 힘



“2018년의 색은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매년 팬톤(Pantone)의 컬러리스트들은 올해의 색을 제안한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 유행에 민감한 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 가방, 운동화만이 아니다. 영화 포스터, 책 표지, 가전, 주방기구까지 독특한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다. 사실 팬톤이 하는 일은 단순하다. 그들은 인쇄소나 공장에서 제각각 짚어내는 색깔을 표준화한 팬톤 매칭 시스템(Pantone Matching System)에 따라 각 상품에 어울리는 색상을 제안한다.

스티브 잡스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팬톤이 제안한 2000여 개의 베이지 색 중 하나를 골랐다. 지난해 말 스타벅스 코리아는 팬톤과 함께 ‘선셋 브러시(Sunset Brush)’ 등 독특한 색깔의 다이어리를 내놓았다. 올해 4월 기아자동차가 출시하는 ‘더 케이 9’은 팬톤의 제안으로 7개 색채의 실내조명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는 팬톤의 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컬러의 힘이다.

컬러는 아는 만큼 보인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색을 구별하는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본능보다는 배움의 차이에 기인한다. 인류 전체로 보자면 현대에 오면서 그 능력이 점점 강해졌다. 고대 그리스의 문학작품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색에 대한 표현을 헤아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블랙이 200번, 화이트가 100번가량 나오는 데 비해 레드는 15번 정도 나온다. 옐로와 그린은 10번도 안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팔레트에 담겨 있다. 수천수만 가지의 빛깔 중에 무엇을 고르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색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컬러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품는다.

나온다. 그리고 블루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블루는 대부분의 문명에서 아주 최근에만 구별하기 시작한 색이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매우 빨리 등장한다. 푸른색을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찾아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방색을 만들고 조합해 저고리와 건물을 채색하면서 세상의 색을 조화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색채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알던 사실이다. <빨간 구두> <푸른 수염> 등 전래 동화 속에서 색깔은 선명한 심리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색채에 대해 깊은 연구를 했고, 이는 들라크루아, 칸딘스키 등 이후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화가들은 자신만의 색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재료들을 실험하기도 했다. ‘진주 귀고리를 단 소녀’ 등 페르메이르의 작품에서는 유독 노랑과 파랑이 돋보이는데, 화가는 이를 위해 진사에서 얻은 버밀리온, 청금석에서 추출한 울트라 머린 등의 안료를 사용했다. 흰색 물감 중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는 연백(Lead White)에는 납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화가의 건강을 해치기도 했다.

18세기 이후 염색, 인쇄, 화장품, 디자인 등 상업 미술 영역이 커지면서 색채를 전문으로 다루는 컬러리스트가 등장한다. 이들은 옷감이나 인쇄물에 정확히 원하는 색을 입히는 일을 하다가, 점차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색을 앞서 제안했다.

컬러와 사회현상의 관계



컬러는 그 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용지다. 장기 불황기에는 블랙이 대세를 이뤘고 취업 면접에서는 회색 계통의 옷이 좋은 인상을 주었다. 전쟁 시기에는ミリ터리 계통의 위장색이 유행했고, 몰자 부족으로 염색에 신경을 덜 쓰기도 했다. 그런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빨간 립스틱이 더 많이 팔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을 어필하는 수단으로 값싸지만 강렬한 색채를 택한 것이다. 여기에서 소위 ‘립스틱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나온다. 코카콜라가 특유의 붉은색을 강조하며 산타클로스의 상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1930년대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코카콜라가 미국 경제 부흥의 상징이 되면서 이 붉은색은 대중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얻게 된다. 우리는 맥도날드, 버드와이저 등 많은 식음료 회사의 로고에서 탐스러운 붉은색을 만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진 1970~1980년대부터는 그린피스, 녹색당처럼 초록색 로고가 인기를 모았다. 스타벅스도 그들 중 하나인데, 커피 한잔이 절실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초록색 등그라미만 보아도 발걸음을 재촉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한 가지 색으로 도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실제 스타벅스 매장에서 초록색의 비중은 5% 내외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색채를 배치하면서 중요한 포인트에 상징 색을 사용하는 것이 피로감을 일으키지 않고도 기억에 오래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흑백에서 컬러의 시대로 바뀌자 사람들은 과거에 비

해 다양한 색채를 쉽게 경험한다. 그만큼 원색의 자극에 피로감도 느낀다. 그럼에도 특정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컬러는 있다. 그래서 패션, 화장품, 자동차, 인테리어 등 유행 색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들은 시장을 앞서가는 컬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보통은 2년 전부터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페인트, 플라스틱, 옷감, 포장 등의 재료 분야에서 먼저 컬러 라인을 확정하고, 이어 광고, 영화, 유명인 등을 통해 컬러 트렌드를 알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인다. 과거에는 패션, 가전, 문구 등에서 이러한 컬러 트렌드의 비중이 높았지만, 요즘은 편의점의 식품 포장이나 저가의 생활용품에서도 무시 못 할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어쩌면 컬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루에도 수십 장의 셀피를 찍고 SNS에 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 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내고 있다. 컬러 트렌드를 이해하면 서도 자신에게 맞는 색채를 팔레트에서 골라내는 감각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색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색깔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당신과 조화를 이룰 또 다른 색을 찾아 팔레트를 늘려보라. 미묘하게 톤을 변화시키고, 정반대의 보색을 매치시켜 보라. 당신도 세상의 컬러를 지휘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예술과 스포츠가 만나다
Shall We Dance?

동화 속 공주는 언제나 예쁜 드레스를 입고 멋진 왕자와 춤을 쳤다. 영화 속 왕자는 언제나 근사한 제복을 차려입은 채 상대방을 능숙하게 리드하면서 빙글빙글 플로어를 누볐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영화나 드라마에서 지켜본 이 풍경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녀 모두의 가슴에 '핑크빛 로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여기, 그 로망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댄스 스포츠를 즐기는 교직원 가족이 바로 그들이다.

함께 춤추실까요?

화요일 늦은 6시, 불 켜진 초등학교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별은 물론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한 곳은 어느 초등학교 5층에 자리 잡은 넓은 강당이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패션이다. 여자는 드레스시한 옷을, 남자는 꽤 화려한 셔츠를 입은 것이 한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경기 양주 삼상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한 고경자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제대로 찾아왔다. 여기가 바로 교사들이 모여 댄스 스포츠를 즐기는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교육원’이다. 때마침 이곳의 정체성을 방문객들에게 알리겠다는 듯 경쾌한 음악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익숙하게 ‘쥬바’를 추며 워밍업을 하기 시작했다. 라틴댄스와 신나는 음악이 결합하니 춤을 모르는 이가 봐도 들썩들썩 흥이 치솟았다.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교육원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2007년. 현재 이곳에서 회원들에게 댄

스 스포츠를 지도하는 이병호 원장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교육원으로 그 출발은 교직원 직무 연수였다. “제가 처음 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민여중 체육 교사 시절이었어요. 교과 과목에 무용이 있었는데 제가 체육 전공자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칠 수 없는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어로빅을 배워 가르쳤다. 그러나 깊이가 없었던 탓에 곧 밀천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 이병호 원장은 운명처럼 대한민국 최초로 교사를 대상으로 댄스 직무 연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차차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댄스 스포츠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교육원의 출발 지점은 그 언저리가 되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주인공

모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이병호 원장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회원들이 따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꽤 놀라웠다. 킁, 킁, 하는 구령에 맞춰 한 번의 시범으로 회원들은 제법 능숙하게 따라 했다. “오늘 수업에 모인 회원들은 3년 이상 경력을 자랑



하는 고급반이에요. 일주일에 세 번 수업을 하는데 수요일은 고급반 학생이, 월·목요일은 초·중급반 학생이 옵니다. 총 54명의 회원이 있는데 매번 굉장히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어요.”

왈츠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신나는 분위기에서 우아하고 밝은 느낌으로 공기가 달라진 것이다. 파트너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잡은 채 몸을 우아하게 세우고 플로어를 누비는 회원들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다. 신기한 것은 회원들의 표정까지도 달라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 회원의 모습은 마치 여왕 같았고, 그런 왕비를 리드하는 남자 회원의 모습에서는 왕과 같은 위엄이 엿보였다.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교육원은 처음에는 교사들로 시작한 단체였지만 지금은 더욱 다양한 직업군의 회원이 모여 있다. 현직 교사는 물론 은퇴한 교사, 학부모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것이다.

김성기 서울 중앙중 교사는 다른 곳에서 댄스 스포츠를 즐기다가 교직원들이 모여 있는 동호회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 가입한 경우로 “다른 곳보다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분이 많고, 출발을 학교에 뒤서인지 매우 품격이 높고 고상한 분위기의 동호회”라고 밝혔다.

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이 댄스 스포츠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뜻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어요. 어쨌든 상대방과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춤을 춰야 하니까요. 제게 댄스 스포츠를 적극 추천해주신 분이 음악과 스포츠, 댄스가 결합되어 있으니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고경자 회장은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재능이 없고 소질이 없어도 좀 더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무런 끼가 없어도 노력과 성실함이 더



해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거죠.” 걸음마부터 시작했다며 다시금 파트너와 손을 잡고 우아한 스텝을 내딛기 시작했다. 음악에 맞춰 세심하게 옮기는 한 발 한 발이 앞서 얘기한 땀방울의 흔적일 터였다.

부부가 함께 즐기는 김인자·김원강 회원에게 댄스 스포츠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혼자서 잘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댄스 스포츠의 특성상 부부가 함께 춤추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늘고 친밀감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10년이 넘는



댄스스포츠 경력을 자랑하는 고흥주 주곡초 교사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건강을 위해 댄스 스포츠를 시작했지만 또 하나, 퇴직 이후에 댄스 스포츠를 통해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퇴직을 한 선생님들에게 왈츠, 탱고, 룸바 등 다양한 댄스 스포츠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삶의 활력과 즐거움은 물론 건강까지 찾아주는 데는 댄스 스포츠만 한 게 없거든요. 재능 기부를 통해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교육원 회원들에게 댄스 스포츠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의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유산소운동과 근육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운동으로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키우는 데도 이만한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취미를 넘어 한국댄스스포츠경기연합회장배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크리스탈배 전국프로·아마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서 개인과 단체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교육원 가족. 열정과 끈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춤을 출 때나 추지 않을 때나 하나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에너지가 더 넓게, 더 크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본다.



댄스 스포츠란?



18세기 말, 영국 상류층 사람들이 사교 모임에서 추던 볼룸댄스에서 비롯되었다. 댄스에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춤을 일컬으며, 경기용과 시범용으로 구분된다. 국제 경기 규정 종목은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로트, 비엔나왈츠 등 모던 댄스 다섯 종목과 룸바, 차차차, 샴바, 자이브, 파소도블레 등 라틴아메리카 댄스 다섯 종목으로 나뉘어 있다. 남녀가 한 쌍이 되어 춤추며, 상호 예의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봄날의 페스티벌을 좋아하세요?

5월은 운동 화사한 봄의 축제!
 파릇한 잔디 위 신나는 공연, 밤의 재즈, 시원한 맥주와 캠핑 등 뜻지리만 있다면
 어디든 즐길 수 있는 봄날의 페스티벌이 우리를 맞이한다.
 페스티벌의 콘셉트가 다양해 선택지는 넘쳐난다. 선뜻 골라 떠나 봄봄봄!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예술 축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예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일원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다. 'Jazztonic'은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jazz'에 '무언가를 더하다'라는 뜻을 담은 'tonic'의 합성어. 음악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아트워크를 만날 수 있다. 2018 재즈토닉의 주제는 소소한 재미를 주는 타로 아트 페스티벌 아트워크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타로 아트의 깊은 철학과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국내외 최정상 재즈 아티스트의 공연은 물론 지역의 숨은 재즈 고수를 소개하는 토닉스테이지(Tonic Stage)도 기대할 만하다.

- Ⓜ 기간 5월 18일(금)~20일(일)
- 📍 장소 청남대(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 문의 043-220-6412



따뜻한 봄날의 음악 소풍 그린플러그드 서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착한 생각과 작은 실천'을 모토로 시작된 그린플러그드 서울. 아홉 번째 봄소풍이 당신을 기다린다. 환경을 생각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모인 그린 커뮤니티 존과 친환경 업사이클을 위주로 운영되는 그린 컬처 마켓. 이 공간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린피스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인디 신(Scene)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인 그린프렌즈 공모'를 진행해왔다. 따뜻한 봄날의 음악 소풍, 행복한 음악 축제로 상큼하게 떠나보자.

- Ⓜ 기간 5월 19일(토)~20일(일)
- 📍 장소 서울 난지한강공원(서울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 문의 gpsfestival.com



6일간의 우주 퀄리티 수제 맥주 페스티벌 더 비어워크 서울(TBWS)

한국 수제 맥주를 대표하는 페스티벌이 온다. 매년 새로운 라인업으로 지루할 틈 없었던 '더 비어워크 서울'. 올해도 어김없이 그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 팔도 덕후를 양산 중인 국내 브루어리부터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해외 유명 브루어리까지! 그 화려한 라인업에 축제를 기다리는 덕후들의 심장이 요동친다. 올해에는 다양한 캘리포니아 출신 브루어리와 함께할 예정.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연과 이벤트를 즐기며 푸른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도심 속 맥주 섬에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보자.

- Ⓜ 기간 5월 22일(화)~27일(일)
- 📍 장소 커먼 그라운드 광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00)
- ☎ 문의 thebooth.co.kr



제주에서 가장 신나는 밤 아일랜드 페스트 밤

제주의 봄, 가장 신나는 밤(BOMB)이 찾아온다. 국내 최정상 DJ 열네 팀과 함께하는 제주 최대 야외 클럽! 논스톱 DJ 세팅 뮤직이 제주의 밤을 화려하게 달군다. 여기에 더해지는 제주 최고의 컬러 파티, 컬러밤 스테이지에서는 누구나 거리낌 없이 컬러 파우더 폭탄을 투척! 신명 나게 흠뻑릴 수 있다. 그 외 낭만 가득 루프톱 존과 비어&푸드 스트리트에서는 제주의 소문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축제 당일 개성 가득한 코스튬을 하고 온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 Ⓜ 기간 5월 19일(토)~20일(일)
- 📍 장소 플레이스 캠프 제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0)
- ☎ 문의 playcegro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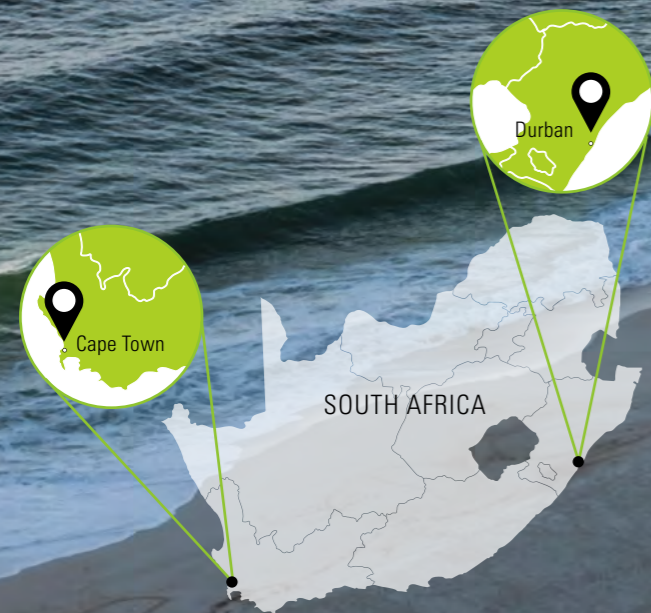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캠핑 페스티벌 KOCAF(KOVEA Camping Festival)

대한민국 캠핑용품의 넘버원, 코베아에서 개최하는 캠핑 축제. 가평 자라섬 안에서도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캠핑장에서는 오토캠핑, 피크닉 캠핑, 백패킹 등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 체험이 가능하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신나는 캠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KOCAF. 코베아의 2018년 신제품 체험 등 대한민국 캠핑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봄을 만끽해보자.

- Ⓜ 기간 5월 25일(금)~27일(일)
- 📍 장소 자라섬 오토캠핑장(경기 가평군)
- ☎ 문의 1588-0184



운을 시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의 또 다른 대륙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 더반·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까마득하다. 인천에서 홍콩까지 4시간, 홍콩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또다시 13시간을 가야 한다. 첫 목적지인 더반은 요하네스버그에서 국내선을 타고 1시간 20분을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인천에서 비행기가 지연 출발하면서 홍콩에서 탑승해야 할 요하네스버그행 비행기를 놓친 것이다. 결국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아디스아바바까지 11시간을 날아가 다시 더반까지 6시간을 날아갔다. 이렇듯 여정이 순탄치 않은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으리라 믿었다. 그렇게 남아프리카공화국 땅을 밟았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도시, 더반

만 하루가 넘게 걸려 도착한 더반. 365일 중 흐린 날이 거의 없다는 도시에는 폭풍우가 치고 있었다. 비행의 피로에 갇은 날씨가 겹치면서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더반에 도착하자마자 시티 투어어를 해야 했다. 정확히 1시간 10분 동안 도요타 랜드크루즈를 타고 시내를 둘러보았다. 작은 공예품 시장 하나를 돌아본 후 월드컵 경기장 앞에 섰다. 가이드 프리티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시간이 남아 커피를 마셨다. 에스프레소 한 잔이 고작 1600원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간 레스토랑에서는 와인 한 병이 8000원이었다. 그리고 보니 어제 호텔 바에서 마신 맥주도 고작 2900원이었다. 우리는 와인 잔을 비우면서 비행기 연착으로 엉망이 된 여정과 더반의 폭우를 모두 용서할 수 있다며 웃었다. 비가 잠시 그쳐 오후에는 골든마일 해변을 걸었다. 더반의 골든마일은 무려 12km나 이어지는 해변

으로 세계 3대 서핑 비치 가운데 한곳이기도 하다. 서퍼들은 험한 날씨에도 열심히 파도를 타고 있었다. 우리는 모래밭에 'I Love Durban'이라고 쓰고는 사진을 찍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약간의 무시와 어쩔 수 없는 긍정이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여행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을까. “해가 뜨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 테니까 걱정 말고 굶나잇.” 프리티가 탄 밴이 폭우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꼼짝없이 비치 보이스를 들어야만 했다. 다음 날 마법이 일어났다. 그녀의 말처럼 해가 뜨자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찬란했고, 야자수는 기분 좋게 잎사귀를 흔들었다. 해변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스케이트보드를 탄 청년들로 넘쳐났다. 바다에는 서퍼들이 바글댔다. 서핑보드 위에 걸터앉은 서퍼들은 수도승처럼 경건하고 엄숙하게 파도를 기다렸다. 더반에서 며칠만 머물

1. 더반의 아침은 서퍼들이 연다. 골든마일 해변은 세계 3대 서핑 비치 중의 한 곳. 해뜨기 전부터 서퍼들이 몰려와 거친 파도를 즐긴다.
2. 더반은 자유롭고 활기차다.
3. 더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도시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다.

집과 일터와 바다를 오가는 심플한 삶.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을 즐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 보면 이 도시를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이들은 서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 뜨기 전 바다로 나간 그들은 바다 위에서 아침 안부 인사를 나눈다. 해가 뜨면 바다에서 나와 출근하고 퇴근하기가 무섭게 다시 서핑보드를 챙겨 바다로 달려간다. 집과 일터와 바다를 오가는 심플한 삶.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을 즐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여행가의 최고 사치,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로

어쨌든 해가 뜨자 모든 것이 달라져버렸다. 우리는 서둘러 아침을 챙겨 먹고 3000원을 내고서 자전거를 빌렸다. 자전거를 타고 해변을 신나게 달리는 것이 더반의 멋진 날씨 속에 불시착한 어리둥절한 여행자가 해변을 즐기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었다. 로열마일 남쪽 끝에는 모요(Moyo)라는 카페가 있는데 수상 방갈로처럼 이곳에서 바라보는 더반은 하나의 완벽한 세계다. 질푸른 인도양과 황금빛 해변, 세련된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가 다정하게 어울려 있다. 해변에는 백발의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느긋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바다를 가르치는 아빠도 있다. 점심은 해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이곳에서 직접 만든 맥주는 향기로웠다. 웨이터는 맥주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 인도양의 파도를 마셔 버리는 거야” 하며 눈을 찡긋했다. 우리는 행복했다. “이처럼 완벽한 날씨와 풍경 속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누군가가 말했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오늘 나쁘다고 내일도 나쁘다는 법은 없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우리는 맥주잔을 힘껏 부딪쳤다. 오후에는 해변 끝에 위치한 ‘우사카 머린 월드’를 돌아보았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해양 테마공원으로 열대어부터 돌고래와 바다표범은 물론 수십 종의

상어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커다란 바다거북과 만타가오리, 물개 쇼를 보며 우리는 어린 토끼마냥 즐거워했다. 수족관을 나오는 길, 누군가 말했다. “더반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 아름다운 도시를 모른 채 살았다면 정말이지 억울했을 것 같아.”

자연이 지구에 준 찬란한 선물

더반에 이어 찾은 곳은 케이프타운이었다. CNN과 BBC, <뉴욕 타임스> 등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시’ 등 온갖 찬사를 바친 도시,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테이블마운틴에 올랐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케이블카 운행이 바로 중단된다. 이곳을 찾은 60%의 여행자가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발걸음을 돌린다는데, 운이 좋았다. 설사 정상에 오르더라도 갑자기 두툼한 안개가 밀려와 안개만 보다 내려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가이드 마틴은 “숙제부터 얼른 해치우자”라며 우리를 이끌었다. 테이블마운틴의 높이는 해발 1086m. 축구장의 15배 크기로 길이가 동서로 3.2km에 달한다. 8억5000만 년 전 바닷물에 잠겨 있던 모래땅이었는데, 대륙판이 이동하면서 치솟아 올랐다고 한다. 그 뒤 오랜 세월 동안 침식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부가 평지를 이루었다.

테이블마운틴 정상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간다. 360도로 회전하는 케이블카를 타면 5분이면 도착한다. 정상 곳곳에 있는 전망대에 서면 키 작은 관목 사이로 어디가 끝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아프리카 대륙이 뻗어나간다. 발아래로는 케이프타운 도시가 양탄자처럼 펼쳐진다. 햇빛을 받아 빛나는 대서양은 눈 뜨기가 힘들 정도로 찬란하다. 산 위에 쓰인 ‘A Gift to the Earth(지구에 준 선물)’라는 문구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게 아프리카의 최남단으로 계속 걸어가면

케이프타운을 벗어나 희망봉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달린다. 바닷가의 굴곡을 따라 심전계 눈금처럼 요

동치는 ‘채프먼스피크’는 400여 번의 굴곡으로 유명한 도로다. 오른쪽 차창으로는 영화에서 본 듯한 지중해풍의 호화 별장이 언덕을 따라 늘어져 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희망봉은 15세기 유럽인들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1488년 처음 이곳에 도착한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는 험한 날씨와 폭풍 때문에 ‘폭풍의 곳’이라 이름 붙였다. 1497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이곳을 통과하면서 ‘희망의 곳’,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다. 유럽 선원들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봉우리를 보고 고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케이프 등대에서 희망봉까지 걸었다. 해가 누엿누엿 질 무렵, 바다가 황금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걷다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바다가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애야, 여행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지.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가르쳐준다. 그러니 계속 걸어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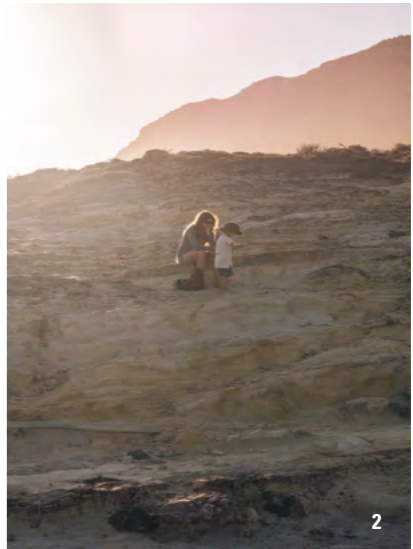
1. 테이블마운틴 정상에서 내려다본 케이프타운. 눈부신 대서양과 어우러진 풍경이 찬란하기만 하다.
2. 희망봉 가는 길에 만난 모녀 여행객.
3. 채프먼스피크를 드라이브하다 만난 풍경. 이런 기막힌 풍경이 여행자의 발걸음을 더욱 느리게 만든다.
4. 대서양의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케이프타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다.



여행 정보



한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는 직항 편은 없다. 홍콩 혹은 아부다비 등을 경유하는데, 대부분 홍콩을 거쳐 요하네스버그로 간다. 아시아나항공과 남아공항공은 공동 운항 협정을 맺었다. 인천~홍콩 3시간 40분, 홍콩~요하네스버그 13시간, 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 2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시차는 한국보다 7시간 느리다. 남반구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계절은 한국과 반대로 5월(가을철) 기온은 13~20℃, 우리의 초가을처럼 선선하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벌어져 긴소매 옷은 필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행하기에 위험하다고 하지만 해가 진 뒤 혼자 다니지만 않으면 치안이 그리 위험한 편은 아니다. 화폐인 ‘렌드(ZAR)’ 환전은 호텔 등에서 하면 좋지만 미화 달러나 신용카드를 쓰는 게 편하다. 금액이 아주 적어도 신용카드를 편하게 쓸 수 있으니 치안 상황을 고려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헛된 추억은 없다. 모든 곳에 추억이 닿았다. 추억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하다. 거리는 변해도 추억을 찾는 이가 있는 한 그곳은 영원하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학림은 안 잊었노라.” 학림다방을 자주 드나들던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의 말이 동감으로 다가오는 곳. 학림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학림은 안 잊었노라
고목의 결 같아라,
학림다방이 지닌 힘**



학림다방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9 (2층)
 10:00~23:00
 02-742-2877

추억의 흔적이 가득한 곳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서면 더 짙은 나무색 공간이 보인다. 학림(學林). ‘학문의 숲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뜻인 이곳은 1956년 문을 열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켰다. 당시 서울대 문리대의 축제였던 ‘학림제’에서 그 이름이 비롯됐다고도 전해진다. 1975년 서울대 문리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문리대 제25강의실’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학림을 나무에 빗댄다면 아마도 고목일 테다. 흐른 세월이 그대로 탁자에 밴 듯 꼬질꼬질한 그 결에는 이곳에 머물던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다. 이곳에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늑함과 정겨움이 가득하다.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 된 만큼, 시간의 흔적은 방명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림의 단골들이 휘갈겨 쓴 방명록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타임머신을 탄 듯 감회를 자아낸다.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의 낮빛에 위로

공간은 때로 그곳을 메꾸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가 짙어진다. 학림을 이야기할 때면 1970~1980년대가 빠질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폭력에 무방비하던 시절, 학림은 모진 풍파를 함께 겪은 운명 공동체였다. 4.19와 5.16, 이후 당시 학생운동이 이루어질 때에도. ‘학림사건’의 상처도 그대로다.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1980년대 대표 공안 사건이었다. 시대의 역사를 함께 나눈 이곳은 내노라하는 문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다. 전혜린, 천상병, 김승옥, 김지하 등이 모두 학림의 단골이었다. “나의 고향, 나의 청춘, 나의 상상, 내가 슬피 울던 곳, 볼레로를 청해 들던 곳.” <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의 글처럼 짓밟힌 청춘에게 위로를 건네던 곳, 학림. 상처를 지녔지만 더욱 단단해지는 고목처럼 지금도 여전히 학림은 우리 안에 자리한다.

The-K와 함께 떠나는, 5월 문화가 있는 날



꿈을 위한
진정한 용기

맨 오브 라만차

‘돈키호테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스페인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자신을 기사 돈키호테라 칭하며 꿈을 좇는 괴짜 노인 알론소의 모습을 그린다. 시종 산초와 함께 우스운 기행을 벌이며 모험을 찾아 떠나지만 특유의 진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특히 꿈을 향한 돈키호테의 강인한 집념을 표현하는 넘버 ‘이룰 수 없는 꿈(Impossible Dream)’이 무대에 올려 퍼지면 잊고 있던 꿈이 떠오를 것이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인 시대에 꿈을 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 전하는 돈키호테 바이러스에 몰들어보자.

- 📅 기간 ~6월 3일(일)
- 📍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익숙한 것에서 성찰을
불러일으키다

이정진: 에코-바람으로부터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이정진이 1989년부터 지속적으로 작업해온 아날로그 프린트 작품을 조명한다. 작가는 한지에 붓으로 감광 유제를 바르고 그 위에 직접 인화하는 수공 방식으로 섬세함과 깊이를 더해 재료와 매체의 실험을 지속해왔다.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더 잘 알려진 작가의 오리지널 프린트를 대규모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은 별도의 액자 없이 한지 프린트 원본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만큼 아날로그 프린트 작품의 독특한 질감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 📅 기간 ~7월 1일(일)
-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 🎫 관람료 2000원 (만 24세 이하·만 65세 이상 무료)



EXHIBITION

MUSICAL

장난스러운 마법의 세계로 이끄는 작품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엔젤과 그레텔>

가족과 연인을 위한 꿈같은 발레극. 영국을 대표하는 4대 발레단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이 내한한다. 1992년 영국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부부의 방한과 함께한 첫 내한 공연에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앙겔베르트 홀퍼딩크가 작곡한 동명의 오페라 음악에 발레단의 예술 감독 크리스토퍼 햄프슨이 감각적인 안무를 입혔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지만 롤리팝, 별모래 등 아름답고 화려한 무대미술과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의 환상적인 앙상블로 새로움을 담았다.

- 📅 기간 5월 23일(수)~27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2시 30분·7시
- 📍 장소 LG아트센터
- 🎫 관람료 VIP석 13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F1963과 줄리안 오피가 만나다 JULIAN OPIE in Busan

폐공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F1963과 줄리안 오피의 이색적인 작품이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전시는 단지 작품들의 무리가 아니며, 스토리와 체험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팝 아티스트 줄리안 오피의 작품이 부산 F1963에 전시된다. 줄리안 오피는 1980년대에 건축물이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오브제를 재해석해 독특한 사물로 구축하는 조각가로 지금은 직접 촬영한 인물과 공간을 컴퓨터를 이용해 공공 사인물과 상형문자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줄리안 오피가 F1963을 방문하고 받은 영감을 토대로 작품을 구성, 전개함으로써 F1963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F1963은 나에게 분주하고, 경쾌하고, 젊은 도시를 반영하는 듯했다’라고 말하는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페인팅, 조형물 및 미디어아트 등 총 6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 📅 기간 ~6월 24일(일)
- 📍 장소 부산 F1963
- 🎫 관람료 성인 1만원 / 청소년 7000원 / 어린이 5000원

EXHIBITION

PERFORMING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로 인해 대출은 어려워지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사는 젊은 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6억원을 넘어섰고, 전세가 역시 4억원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담 증가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거주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해소 방안이 있을까?

금리 인상기 내 집 마련, 임대주택으로 돌파구 찾기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주거 대안, 임대주택
가족의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프리미엄이 극에 달한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자금 여력이나 투자 리스크가 너무 높아 대부분 청약으로 관심을 돌린다. 그러다 보니 8·2부동산대책의 핵심 또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이 넘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으로 높아졌다. 투기과열지구(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는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뽑는다. 문제는 대출금리 인상과 구분양가로 청약당첨에 불리한 젊은 세대와 기존대출이 있거나 자금 여유가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주거 대안인 임대주택에 대해 색다른 시각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나가야 한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를 살펴보자.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해 50년까지 장기임대로 계획한 주택이므로 일반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제공하는 아파트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2년 단위로 자격을 재심사한다. **장기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한 전세 계약 아파트로 20년 동안 살 수 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의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한 후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역 5500만원이며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 금액의 연 1~2%이다.

뉴스테이에서 행복주택까지 맞춤형으로 접근하자!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8년, 임대 기간 동안 연 5% 이하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된다. 소득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청약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기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 점, 임대인과의 갈등 없이 민간 분양 주택의 새집에서 살 수 있다는 이점은 크지만 최초 청약 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비싼 곳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가 주거 안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으로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첫 임대료를 저렴하게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뉴스테이와는 다르다. 전체 세대 수의 대부분을 65세 이상 고령층과 평균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어 이제 막 가정을 꾸린 교직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한다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거주 기간이 6년까지만 신혼부부라면 자녀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팁!

먼저 세입자의 대출 활용을 살펴본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 혹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70% 한도에서 2000만원까지 최저 2.3%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 이외에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눈여겨보자.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고 8000만원,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최저 2.3%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한해 임차 보증금의 80% 내에서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1.2~2.1%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시기이니만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대출을 활용하여 금리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투자 못지 않은 재테크다.

두 번째는 최근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부동산 규제, 갭투자 증가로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강통주택이 하나둘 늘며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 강통주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우선순위 채권이 20% 이상인 주택은 피하고, 계약하자마자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우선해야 한다. 또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날 때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계약서에는 전세 종료 시 집주인이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게 되어 있어 금융회사에서는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임차 가구 대부분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있어 정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물론,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나아가 집주인이 8년 임대 시 양도세 증가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혜택이 더해진다. 세입자 또한 연 5% 제한 인상에 의한 임대료 절감과 이사 걱정 해소, 중개 비용 절약 효과를 누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 월세와 공공임대 거주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리스크를 제거하고 초기 자본을 낮추어 노후 대비 자금 마련까지도 가능한 중요한 재테크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지만 경기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봄별과 봄바람으로 꽃피운 예술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그날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 걸린 250여 점의 작품은 전국 교직원은 물론 일반 관람객에게도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이 되었다.

제 2 회 한국교직원 미술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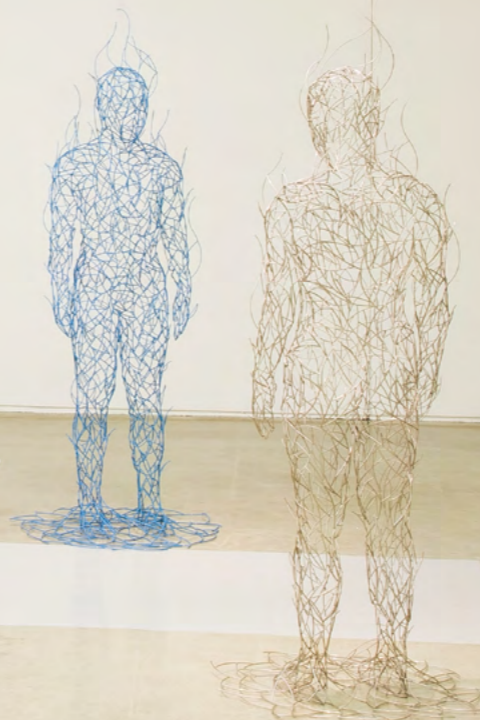
「그날의 기억」

겨우내 준비한 전시회가 활짝 꽃피우다

꽃망울이 터지고 나무에서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는 3월, 교직원의 미술관 나들이를 북돋우듯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이 열렸다. 제1회 전시회에 이어 마련된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43일간 작품을 접수한 결과, 무려 700점에 이르는 작품이 출품됐다. 이 중 작품성과 분야,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250여 작품과 20여 점의 초대 작가 작품이 전시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전시보다 작품 분야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와 소재 또한 다채로워 눈길을 끌었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사실 묘사에 집중한 작품도 있고, 자연을 보고 느낀 감상을 담은 작품도 전시회를 채웠다.

초대작가 특별전



또한 철학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작품도 있어 감상의 즐거움은 더욱 컸다.

<그날의 기억> 전시의 설명을 맡은 이솔 도슨트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교직원들이 보여준 예술 정신과 작품성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전시된 공제회원의 작품에는 전문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 많았습니다. 초대 작가들도 대부분 교수님이셔서 전시된 대부분의 작품은 교직원의 작품으로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인이자 한 가족의 아내와 엄마, 남편과 아빠 역할까지 하시면서 동시에 예술가로서 굉장히 치열하게 작업에 몰두하시는 것인데, 작품을 보면서 예술 정신에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함께 즐기는 축제와 같았던 개막식

많은 교직원과 관람객의 기대 속에서 <제2회 한

국교직원미술대전-그날의 기억> 개막식이 시작되자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감사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올해 역시 많은 교육가족의 성원 속에 미술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분업에 충실하면서 예술 활동에도 몰두하신 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만 250점만 전시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시되지 않는 작품을 내주시는 공제회원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장소에서 더 많은 분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추진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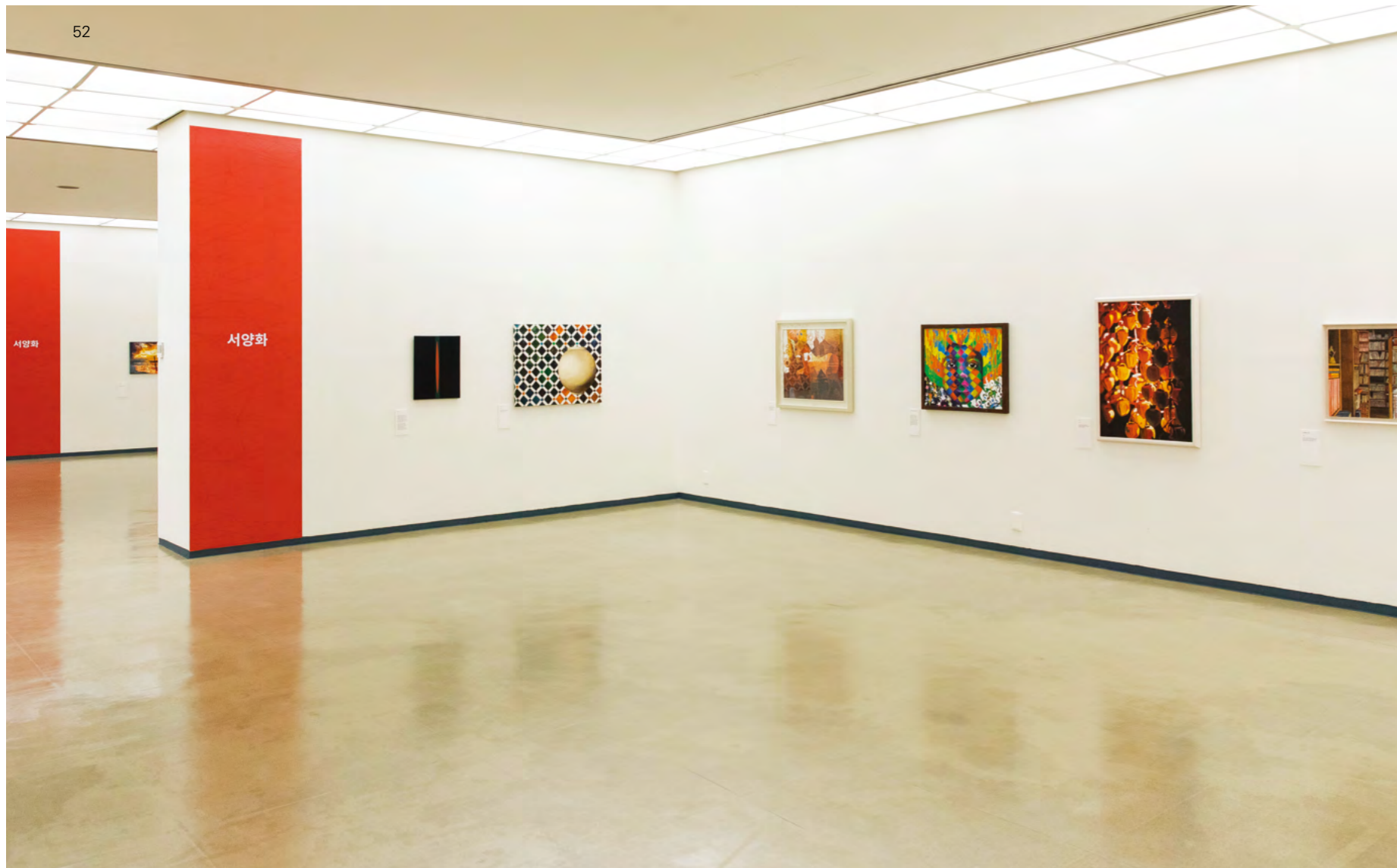
“전국에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많은 교직원 여러분, 교직원공제회 직원들, 초대 작가님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전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 멋진 전시를 기획하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개막식에는 특별한 축하 공연도 마련되었다. 재즈 밴드 포시즌이 봄날에 열린 전시회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곡 'Fly Me to the Moon' 'L. O. V. E'를 연주해 참석한 이들이 눈으로만 아니라 귀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전시장 앞에는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과와 음료도 준비돼 개막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함께 즐기는 축제처럼 느껴졌다.

회원에게도, 관람객에게도 추억이 될 '그날의 기억'

본격적으로 전시가 시작되자 교직원과 관람객은 작품을 둘러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서양미술사를 전공한 강영희 회원은 교사 동창 모임에서 전시회를 찾아 특히 그 소감이 남달랐다.

“교직원들의 예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 놀랐어요.



수채화만 해도 생생한 작품이 많아서 특히 좋았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다면 이 전시회에 나온 작품의 소재나 특성을 이용해 아이들과 미술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도 많았죠. 오늘 이렇게 제 동료와 다른 동료들의 작품을 보며 많은 감상이 들었고, 의미 또한 깊어지네요.” 작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이미선 수원여대 교수의 작품 ‘태양색 모발에 물들다’는 화학적 모발 시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

전시 작품을 눈으로만 담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이 작품들 다 사진 찍어도 좋아요”라는 안내가 들리자마자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다. 학생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도 마음에 드는 작품이 보이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이날의 감동을 기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관람객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감동이었지만, 공제회원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서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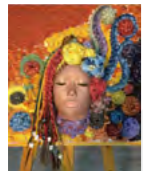
회원도 그중 한 명이다.

“지난해 미술대전에 출품했는데 어렵게 전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출품했는데 제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기뻐요. 오늘 관람객 중 한 분이 제 그림을 보면서 ‘이런 한국화도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국화’ 하면 많은 사람이 수묵화를 떠올리지만 저는 채색화를 그리거든요. 관심 있게 제 작품을 봐주시고, 감상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전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를 모두 돌아보고 난 뒤 마주한 출구 앞에는 팸플릿과 포스터에 나온 나무가 크게 그려져 있었다. 전시회의 감상을 적은 메모지로 직접 잎사귀를 달아주도록 마련된 이 나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사랑스러워” “좋은 곳에서 좋은 작품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등 수많은 잎사귀에는 ‘그날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더욱 무성해지고 있었다.



MINI INTERVIEW



이미선
수원여대 교수

교직원이 전공과 상관없이 미술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시회를 통해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전시회를 관람해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홍진
공제회 문화복지팀장

지난해 보다 더 많은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회원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수
서강대 학생

교직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초대 작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다는 점과 조각 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부분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찾아온 격정의 사랑을 만나다

뮤지컬 <닥터 지바고>

3월 31일 토요일 정오, 서울 잠실에 위치한 사롯데씨어터 로비가 인파로 북적였다. 바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전석을 대관한 뮤지컬 <닥터 지바고>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교직원공제회원들의 모습이었다. 봄과 함께 찾아온 특별한 문화 공연, 그 즐거웠던 현장을 <The-K 매거진>이 함께했다.



The-K 회원 초청 행사 행복서비스

30:1의 경쟁률을 뚫었어요

뮤지컬 <닥터 지바고> 포스터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찰칵찰칵, 셔터 누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로비 중앙에서는 상기된 모습의 회원들이 줄을 서서 티켓과 기념품을 받고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준비한, 봄 향기 가득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즐거운 주말을 더욱 즐겁게 할 대작 뮤지컬 <닥터 지바고>를 볼 생각에 여지없이 들뜬 회원들의 모습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신명이 났다. 오늘 무대에 오르는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 작가 파스테르나크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을 뮤지컬화한 것이다. 러시아혁명을 배경으로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인간의 영혼과 피할 수 없는 혹독한 운명의 대서사를 그린 작품으로, 영화로도 수차례 만들

어져 대히트를 기록한 명작이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합으로 참석한 듯 보이는 수많은 사람 중 유독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회원이 눈에 띄었다. “아내와 함께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울만큼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많지 않아 기대 없이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어 정말 기쁘네요.” 김평수 회원(원광보건대학 행정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스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녀 커플도 눈에 들어왔다.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딸하고는 이렇게 데이트를 할 기회까지 얻어서 더 좋네요.” 김정실 회원(인천 공항중)도 딸과 함께 함박 미소를 지었다. 사실 오늘 공연장을 찾은 회원은 무려 29.4: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엄청난 행운아들이다. 모두 치열한 경쟁률을 예상했기에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배로 기뻐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이것뿐이 아니다. 오늘 관람객을 위해 커피와 주스까지 무료로 제공한 것. 회원들은 커피와 주스를 마시며 마치 소풍 나온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느끼다

뮤지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특별히 공제회원만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신춘수 프로듀



서는 뮤지컬 <닥터 지바고>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제작 과정을 꼼꼼히 설명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도왔다. “즐겁게 관람하길 바란다”라는 그의 인사와 함께 드디어 무대의 막이 올랐다. 소설 <닥터 지바고>의 웅장함과 스케일을 과연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모두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무대는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꼬마 유리 지바고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고아가 된 지바고는 토냐의 집으로 입양되고, 소꿉친구가 된 토냐와 함께 자란다. 의사이자 시인으로 성장한 지바고는 토냐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곳에 라라가 나타나 중년의 신사를 향해 총을 쏜다.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된 결혼식 피로연 현장. 그러나 지바고는 끌려 나가는 라라의 모습을 강렬하게 마음속에 담아둔다. 당시 러시아는 막강한 황제 차르의 시대로 귀족은 호의호식하며 지냈지만 가난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노동자들은 결국 혁명을 일으킨다. 그 속에서 지바고와 토냐, 라라는 모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빠지게 된다. <닥터 지바고>는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는 스케일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주인공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넘버는 관객으로 하여금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00% 참석, 100% 행복

오늘 출연한 배우들의 화려한 면면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지바고 역의 박은태, 라라 역의 전미도, 라라

를 사랑하는 코마로프스키 역의 최민철 등이 무대에 올라 압도적인 노래와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다. 대한민국 뮤지컬계에서 내로라하는 배우가 총집합한 이번 무대는 소설 속 캐릭터들이 어떻게 재해석되어 관객에게 생생히 다가가는지 뮤지컬의 매력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러닝타임 170분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인터미션 때는 관객들이 떠나없이 <닥터 지바고> 프로그램 북을 다시 펼쳐 더 열심히 들여다보는 게 인상적이었다. 누군가는 삼각관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라라를 두고 “아침 드라마에 단련이 되어서인지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소곤거리 주변 회원들이 웃음을 뺨 터트리기도 했다.

지바고와 라라의 가슴 아픈 이별은 더없는 비극이었으나, 무력무력 자라는 지바고의 자녀들을 통해 꺼지지 않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닥터 지바고> 무대가 막을 내리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커튼콜 내내 박수가 계속되자 출연 배우 모두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뮤지컬의 막은 내렸지만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출연 배우들과 함께하는 러키 드로(lucky draw)가 시작된 것. 코마로프스키를 연기한 배우 최민철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교직원들께서 전석을 대관하신다고 해서 사실 뮤지컬을 학구적으로 보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관객 폭소) 하지만 뜨겁게 환영해주고 즐겁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답의 의미로 와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5명을 추첨할 텐데 시간상 한꺼번에 추첨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객석에서 함성과 웃음소리가 동시에 터지며 떠나없이 티켓을 꺼내 자리를 확인했다. 와인 선물을 받은 5명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다.

뮤지컬 관람 신청자 모두가 100% 참석한 기록을 세운, 그리고 끝까지 감동과 웃음이 함께한 뮤지컬 <닥터 지바고> 현장. 성큼 다가온 봄을 문화 체험과 함께 맞이하니 아니 즐거울소냐.

“또 불러주세요!” 회원들의 즐거운 외침이 공연장 로비에 오래오래 떠돌았다.



MINI INTERVIEW



홍석우(평택교육지원청),
이경화, 홍재현 님

부모님께서 평소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번 <닥터 지바고> 공연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티켓을 일인당 2장씩 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입장시켜드리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무엇보다 공연을 보신 부모님께서 신선하고 재밌었다며 감동스러웠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합니다.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와인 선물까지 받다니,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쳐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주신 한국교직원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김혜림(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박성호 님

저는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전석을 대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상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모르지만 다 함께 보니 마치 온 가족이 함께 즐긴 것 같이 특별히 더 좋았어요. <닥터 지바고>는 줄거리만 보고 왔는데 극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여기에 커피도 무료로 주시고 와인까지 선물 받아 무어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장나리(경기 의정부 송양고),
이서림 님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막상 뮤지컬로 보니 예전 생각도 나고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 딸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는데 여기까지 같이 오기까지는 힘들었지만(웃음) 막상 오니 좋네요. 딸도 재미있었다고 하니 더 행복했구요. 친한 선생님이 한국교직원공제회 뮤지컬 초대 이벤트에 응모해서 당첨됐다고 하길래 저도 덩달아 응모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딸과 함께 정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제회 제107회 대의원회 개최... 2017년 준비금전입전손익 1조 6398억원 거양·자산 32조원 달성



급여율 산정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결정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공제회가 역대 최고의 경영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며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도전과 혁신을 거듭해 교육가족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회=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공제회 최고의결기구다. 17개 시·도별로 일반회원 78명, 특별회원 4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되며, 공제회 사업계획과 예산심의·결산보고, 정관 변경, 기타 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을 의결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월 22일 The-K타워에서 제107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결산보고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의원회 결산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공제회 총자산은 32조 4579억원이다. 준비금전입전손익은 1조 6398억원, 당기순이익은 4452억원을 거양했다. 특히 준비금전입전손익은 목표 대비 143.3%에 달하는 규모로, 금융투자과 해외투자 부문 자금운용 실적이 크게 기여했다. 금융투자의 경우 주식 비중 확대 전략 및 IPO 참여 등으로 5455억원의 이익을, 해외투자는 글로벌 경기 상승 및 우량투자자 4355억원의 이익을 달성해 각각 목표 대비 184.9%, 119.5%의 실적을 보였다. 공제회는 이 같은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말 총자산 목표를 35조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공제회 본사 사옥 신축으로 인한 주사무소의 주소 및 회관 명칭 등 개정 ▶시중금리 및 본회 경영상황에 연동하는

2017년도 자산 구성



여의도 새 공제회관 'The-K타워' 개관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3월 22일 서울 여의도 신축회관 'The-K타워'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공제회 임직원 및 출자회사 대표, 대의원, 지부장, 교육계 인사, 전임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공제회는 The-K타워 입주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영 슬로건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령으로 The-K Way를 확정,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The-K Way의 5개 강령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합니다 ▶혁신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협력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초·중·고 재직 중 사고·질병으로 휴직 시 소득 보전 새 보험 '교직생활퍼펙트공제' 5월 15일 출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초·중·고 교원만을 위한 맞춤형 보험 신상품 '교직생활퍼펙트공제'를 선보인다. 재직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으로 휴직 또는 퇴직 시 감소하는 월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3대 마음질환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일상생활을 고려해 설계한 점이 큰 특징이다.

질병휴직 또는 공무상 퇴직 시 월 생활비 보전



교직생활퍼펙트공제는 '교직의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상품명에 걸맞게 교원이 재직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와 공무상 장애등급을 인정받아 퇴직하는 경우에 감소하는 월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 포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해 질병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 월 50만원(최대 24개월 한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돼 퇴직 시 100~50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5년간 월 10~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 (1구좌 기준)

교직생활 중 발생하는 3대 마음질환 치료 프로그램 및 진단비 지원



기존의 보험이 피급여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교직생활퍼펙트공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소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생활 보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교직원에게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 시 진단비 50만원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대면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가족대상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교권침해 발생 시 30만원의 위로금도 보장한다.

출산 위한 치료지원, 뇌경색 보장 등 다양한 선택특약



그 밖에 특약으로는 사망, 신입원, 수술, 암진단, 교직원질환수술, 신2대질병진단, 모성보호 등이 있다. 교직원질환수술특약은 교직원3대만 성질환(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보장하는 특약이다. 신2대질병진단특약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에 뇌경색까지 보장 확대했으며, 모성보호특약은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해야 하는 근무환경 탓에 임신 초기 산모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산모질환, 임신출산질환, 산모특정질환 및 저체중아 출산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보험상담문의 1577-3993

50세 이상 공제회원 초청 액티브시니어 강연회 개최

퇴직을 앞둔 50~60대 공제회원을 초청해 전문강사로부터 행복한 노후 준비법을 전수받는 액티브시니어 강연회가 개최된다. 5월 23일부터 전국 6개 지역의 공제회관에서 진행되며, 이후 선술사이비대학교 교수(KBS 아침마당 등 다수 프로그램 출연)가 강사로 나선다. 50세 이상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만 응모 가능하며, 5월 8일부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	일자	장소	모집 인원
서울	5월 23일(수)	The-K타워	100명
경기	5월 24일(목)	경기회관(수원)	80명
대전	5월 30일(수)	대전회관	80명
광주	5월 31일(목)	광주회관	80명
대구	6월 7일(목)	대구회관	80명
부산	6월 14일(목)	부산회관	80명

5월부터 일반대여 한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5월 1일부터 공제회 일반대여 보증보험 이용 한도가 공제회 가입기간 및 신용등급에 따라 확대됨에 따라 대여액 한도 또한 1000~2000만원 증가된다. 현재 일반대여 이율은 연 3.6%이며, 한도 확대 내용은 표와 같다.

신용 등급	공제회가입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1~2등급	7000만원 (2000만원 증가)	7000만원 (1000만원 증가)	7000만원
3~4등급	5000만원 (1000만원 증가)	6000만원 (1000만원 증가)	7000만원
5~6등급	3000만원 (1000만원 증가)		4000만원

한편, 공제회는 일반대여 외에도 The-K복지누리대여와 무이자대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The-K복지누리대여는 ▶공제회 가입 후 최초 대여 시 3000만원까지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3000만원까지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율은 연 2.99%이다. 무이자대여는 보건의료자금과 재해복구자금으로 현재 운영 중이다.

☎문의 1577-3400



‘조손가정 무료 장례 지원’ 대상자 1000명 선정 … 31일까지 접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조손가정 무료 장례 지원 대상자를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사망 시 미성년인 손주가 장례를 포함한 여러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11년부터 공제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The-K에다함상조를 통해 무료 장례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부모 사망 시 교사 또는 학교에 알리면 The-K에다함상조에 바로 전달돼 장례 절차를 밟게 된다. 무료 장례 지원 내역은 전문 장례지도사, 의전도우미 등의 인력서비스를 비롯해 수의·상복·목관·제단장식 등의 각종 장례용품, 장의차량,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등을 포함한 400~500만원 상당이다. 지난해까지 총 83명의 학생이 무료 장례 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하는 대상 인원은 1000명 내외다. 무료 장례 지원 대상은 조부모가 만 70세 이상인 초·중·고등학생이며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추천서 및 접수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o.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문의 02-2090-3160

장애인 교원에게 수업용 교육보조기기 전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최근 장애인 교원 22명에게 수업에 필요한 교육보조기기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교육보조기기는 공제회가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재단과 장애인 교원 교육보조기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달한 8200여 만원의 기부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지난 2월 공제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 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 교원의 신청을 받고, 총 60명의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교원에게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점자정보단말기, 보청기 등 본인이 신청한 보조기기를 전달했다.

공제회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장애인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또 장애인 사업장 물품 구매 확대, 입찰·구매시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 등 장애인 및 장애인 기업 지원 사업, 저소득 청소년 멘토링 사업, 조손가정 장례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북&JOY’ 도서증정 이벤트 … 9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제회와 함께하는 북&JOY’ 도서증정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기욤 위소의 ‘파리의 아파트’와 정문정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으로 각각 2000명의 회원에게 추천을 통해 증정한다. 응모는 공제회 홈페이지(www.ktco.or.kr)에서 하면 된다.



- ▶ 응모기간 : 5월 9일까지
- ▶ 당첨발표 : 5월 14일
- ▶ 문 의 : 1577-3400

멘토와 함께하는 교사 고민상담 강연회 ‘토닥토닥 힘내요 그대’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4월 14일 여의도 The-K타워로 1000여 명의 교사를 초청해 ‘토닥토닥 힘내요 그대 시즌2’ 강연회를 열었다. ‘토닥토닥 힘내요 그대’는 교사들의 고충과 고민에 대한 질문거리를 사전에 받아 멘토가 이 중 일부 사연을 선정해 상담해주는 토크쇼 형식의 강연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에는 철학자 강신주, 심리치료 전문가 최성애,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이 나서 강연과 함께 교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용기를 주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동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한 공제회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볼 수 있다.



The-K손해보험, ‘스승의 날’ 기념 사연 공모 등 이벤트 풍성

The-K손해보험은 5월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이벤트 ‘어서 왜 우리학교는 처음이지?’는 최근 3년 이내 임용된 신입교사가 학교 소개 또는 자랑거리를 응모하면 우수작을 선정해 푸드트럭을 보내준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감동 사연 응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정된 학생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교사에게는 학급으로 간식을 보내준다. 응모기간은 5월 4일까지이며 이벤트 블로그(thefamily.blog.me)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에듀카 인터넷 자동차보험 출시 1주년을 기념하고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을 응원하는 ‘더블더블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초성날말퀴즈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를 친구에게 SNS로 공유하면 당첨확률이 두 배 높아진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면 당첨자도 두 배인 340명으로 늘어난다. 5~6월 중 자동차보험 만기인 고객이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면 추첨을 통해 GS칼텍스 3만원 주유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는 홈페이지(www.educar.co.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educar.c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The-K손해보험은 국내 골프장 예약서비스 1위 엑스골프와 제휴를 맺고 보험가입 고객에게 골프장 온라인 예약, 그린피 할인 서비스를 11월 초까지 진행한다. 예약 일(라운드) 기준 5월 4일까지 엑스골프에서 예약 후 18홀 라운딩을 완료하면 무료 라운드, 골프공 등 경품 추첨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 문의 02-6670-8805(이벤트), 1544-9017(골프 예약)

The-K호텔서울, 5월 바비큐 비어 파티 시작



The-K호텔서울은 신록의 계절을 맞아 분수광장에서 신나는 라이브 음악과 바비큐, 생맥주를 한자리에 즐길 수 있는 ‘바비큐 비어 파티’를 시작한다. 셰프가 직접 구워주는 LA갈비, 숯불닭갈비, 곰장어, 소시지 등 라이브 그릴 요리와 훈제연어, 파스타, 중화야채구이, 과일 디저트 등 총 30여 종의 다양한 메뉴,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는 양고기 구이와 소등심 구이 등의 메뉴가 추가되고 아사히 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명함 추첨 이벤트를 진행해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바비큐 비어 파티는 오는 5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며 일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6월 6일, 7월 29일~8월 6일, 7~8월 월요일은 휴장한다. 가격은 월~목요일 성인 4만2000원, 금·토·공휴일은 4만8000원이다. 소인은 요일 상관없이 2만7000원이다. 공제회원, K캠버십회원, 호텔투숙객, 20인 이상 단체고객은 10% 할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he-k-hotel.co.kr) 참조 ☎ 문의 02-526-9556

The-K호텔경주, 패밀리 패키지 판매

The-K호텔경주는 공제회원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를 5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스탠드 객실 1박, 조식



2인 11만5000원~16만5000원이다. 단, 화요 스페셜 이벤트로 5월 1·8·15·22일(근로자의 날, 아버지의 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은 별도 요금이 적용돼 9만5000~1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면부 객실 또는 준특실업그레이드 시 요금에 추가된다. The-K호텔경주는 온천 전용 복합휴양시설 스파월드로 유명하다. 스파월드는 사우나, 노천탕, 수영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 문의 054-745-8100

The-K설악산-지리산가족호텔 여름 성수기 객실 예약 접수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여름휴가철(7월 27일~8월 14일)을 앞두고 객실 배정을 위한 예약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www.the-k-hotel.co.kr)를 통해서 진행된다. 1인당 1실(최대 2박 3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0평형 15만8000원(조식 2인 포함) ▶29평형 21만5000원(조식 3인 포함) ▶47평형 28만원이다. 한편, 5월부터 설악산가족호텔 인근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가 펼쳐진다. 속초 대포항에서는 ‘대포야(夜) 사랑해(海) 축제’가 5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인근 고성 ‘대문어 축제’, 인제 황태 축제’ 등도 개최된다.

☎ 문의 033-639-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또한 여름 성수기(7월 20일~8월 14일) 객실 배정을 위한 예약을 5월 1일부터 전화로 접수한다. 17평 기준으로 객실 요금은 13만원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위치한 전남 구례를 비롯해 남도 지역은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특히 5월에는 남원 바래봉 철쭉제, 남원 춘향제,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잇따라 열려 나들이에 나선 상춘객을 맞는다.

☎ 문의 061-783-8100

'슈퍼 해피'한 가정의 달을 위해 씁니다!

The-K 매거진 5월 즉석당첨이벤트

이벤트 기간
5월 1일~31일

가족에게 서로서로 작은 기쁨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The-K 매거진이 우리 가족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슈퍼 해피해피'한 5월을 위해 도전~!

WOW!!

아빠가 좋아하는 편의점?

300개



GS편의점 5천원권 (모바일)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

300개



스타벅스 카페라떼 (Tall)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300개



SPC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5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제 또는 미기입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프티콘은 6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신규출시

나를 위한 완벽한 선물

남들은 걱정 없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보험
교직생활 퍼펙트공제



질병 휴직·공무상 퇴직시
경제적 지원

우울증·공황장애 등
업계 최초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술·암진단·뇌경색 등(특약)
폭넓은 보장